



# 굿모닝인천

AUGUST 2020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20

## 08

INCHEON MONTHLY MAGAZINE

굿모닝인천

2020.08 | AUGUST

3년 연속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지

소아도





아픈 역사와 삶으로 엮인  
시간

부평 ‘삼릉 마을’. 그 이름은 전범 기업 ‘미쓰비시’의 한자 발음인 ‘삼릉三陵’에서 왔다. 한 지붕 아래 벽을 열기설기 세워 지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던 동네. 1940년대 미쓰비시 군수공장에 강제 징용돼 빼گل 녹아드는 고통 속에 일하던 조선인들이 엉켜 살았다. 광복 이후 노동자들은 대부분 떠났지만, 마을은 그대로 남았다. 그 빈자리엔 가난하지 만 행복하게 삶을 살아내던 사람들이 머물다 떠났다. 마을은 그렇게 넓어갔다. 시간이 멈춘 삼릉 마을에, 오늘 새로운 바람이 분다. 도시재생과 역사의 기록화다. 철거 표식이 나뉘구는 곧 쓰러질 듯 위태로운 빈 공간이지만, 햇살은 평화롭다. 아픈 역사와 고된 삶이 엮여온 시간의 거미줄이 그 아래 빛나고 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 오늘, 시간에 허물어진 줄사택. 옛 사진은 1960년대 그 안에서 행복한 한때를 보내던 주민들의 모습이다.(김재선 제공)  
기억은 희미해져도, 역사는 남는다. 부평구는 ‘새뜰마을 조성 사업’으로 부평2동 ‘삼릉 마을’에 새 숨을 불어넣고 있다.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올해 초 문을 열었다. 또한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의 실상을 조사하며 줄사택을 기록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0년 8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인쇄인  
신봉훈(소통협력관)

편집인  
백상현(소통기획담당관)

총괄편집국장  
김진국

편집장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성환·류창현·최준근

디자인·제작  
웨스트코(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 지원 이북 바로가기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CONTENTS

04	인천 미소 공감 가는 매체, 인천을 공유하는 <굿모닝인천> 外
06	특집 혁신 공무원과 어린이 홍보대사의 대화
08	복합 문화 공간 새단장 제물포구락부
12	인천의 맛 ① 민어
18	여름 즐기기 언택트 휴가
22	인천 VS 세계 도시 ⑤ 인천 공영 텃밭 VS 시애틀 파파치커뮤니티 가든
26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③ 길상초등학교
30	정책 만화 ③ 자원순환
32	시민 시장 도쿄아시안게임 사이클 금메달리스트 2관왕 이홍복
34	문화 캘린더 살롱 콘서트 ‘휴’(休, HUE) 外
36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주년
37	제5회 문학산 음악회
38	내가 사랑하는 인천 인천문인협회장 김사연
40	이미지 뉴스 포스트 코로나 인천
42	시정 뉴스 공촌정수장 밀폐형으로 개량, ISO 22000 도입 外
46	의회 뉴스 제8대 인천시의회 새로운 출발 外
48	드로잉 인천 송도국제도시
50	인포 박스 코로나 블루, ‘마음 검사’로 함께 이겨내요 外
56	소소한 인천 이야기 다시 찾은 그 이름, 물치도 外
57	仁生 사진관 여름 졸업식
58	인천의 아침 8·15광복 75주년 인천, 태극기 휘날리며
59	몽(夢)땅 인천 II 새마을회관(계양구 효성동)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 인천미소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www.facebook.com/incheon.gov  
 blog.incheon.kr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twitter.com/incheon\_gov  
 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천시 미디어’  
 www.instagram.com/incheon\_gov  
 www.weibo.com/incheon

### 공감 가는 매체, 인천을 공유하는 <굿모닝인천>

신설된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학창 시절의 아련한 추억이 다시금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키워드인 세상입니다. 인천 사람 모두와 나눌 수 있는 인천만의 이야기, 인천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폭넓은 소식을 담아주세요.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굿모닝인천> 파이팅!

이재현 중구 제물량로

### 누구나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도시

장성한 아들과 딸이 살고 있는 인천은 저에게도 제2의 고향으로 친근합니다. 인천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을 무대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그저 뿌듯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젊은이들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시, 누구나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김정애 계양구 도두리로

### 보다 다채롭고 심도 깊은 인천 이야기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천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굿모닝인천>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매월 각 군·구별 특집 기사를 편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명소가 있는지, 이웃 중 특별한 스토리를 지닌 사람은 없는지 등 다채롭고 심도 깊은 콘텐츠가 많이 발굴될 것 같습니다.

김동훈 남동구 선수촌로

### 도시의 역사 품은 우리네 삶을 조명

인천의 오래된 골목을 지날 때면 낯설고도 신선한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이지만, 거리거리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공간들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오래된 노포나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의 사연 등 인천의 역사와 맞닿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임종일 서구 가정로

감 사 합 니 다



## 우 리 동 네



### 개경과 연결되는 임금님의 나루터

글 윤용완(강화도 강화읍)

강화도 승천포는 지금 철조망으로 퐁퐁 묶여 뱃길이 막히고 형체마저 알 수 없지만, 그 옛날 사람과 배들이 구름처럼 오갔으며, 1232년 고려가 몽골에 장기간 항전하기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면서 고려 고종이 건너온 나루터였다. 고종은 개경의 경천사로 가는 남쪽 길로 북한에 있는 승천포에서 바다를 건너 강화도 승천포에 내렸다고 한다. 개경은 고려 시대 개성의 옛 이름이다.

당시 개경에서 강화로 건너는 승천포진이 강화로 통하는 지름길이었다. 마찬가지로 승천포진이 강화에서 개경대로로 통하는 지름길로 이 포구는 북한의 개경 쪽과 강화 쪽이 다 같이 승천포로 불리고 있다.

고종도 개경에서 승천포를 출발해 강화도의 승천포 나루터에 내려 강화도 송악산 아래 궁으로 입궁했다. 귀에 익숙한 이 산은 현재 북한의 개성에 있다. 그런데 강화에도 송악산이 있으니, 이는 고려가 천도하면서 강화의 북산을 송악산으로 고쳐 지었기 때문이다. 승천포도 송악산도 모두 임금이 개경에서 갖고 온 지명들이다. 또 하나, 매년 봄철이면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강화 고려산이 있다. 원래 이름은 오련산이었는데 고려가 천도하면서 그 이름을 따 고려산으로 바꾼, 나라 이름을 가진 국산國山이자 진산이다.

승천포는 6·25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개성과 강화를 잇는 뱃길의 관문이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황해·평안도에서 한양(서울)으로 가는 배들은 모두 승천포를 거쳤다고 한다. 고려 시대에도 고종은 승천포에서 하선해 화려한 어가의 행렬이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어가의 행렬이 어디로 어떻게 궁궐까지 이어졌는지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강화문화원에서는 오는 10월 당시 어가의 추정 행차로를 찾고 고종을 토대로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고려 시대 어가 행렬을 재현한다.

지금 승천포에는 천도 당시 국난 극복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고려천도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고려 만월대의 출입문을 형상화한 천도문과 어가 행렬이 음각된 원형의 앞음벽, 고구려 광개토대왕릉비를 형상화한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인공 폭포, 수변 휴게 공간을 마련해 북한 땅을 바라보며 가족 단위 휴식도 즐길 수 있다.





## “인천시가 혁신행정 전국 1등 했습니다”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인천시가 지난해 말 ‘혁신 최우수 지방정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2억7,500만원의 특별교부금으로 축하해 주었다. 지난 7월 6~10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인천, 혁신을 디자인하다’는 인천시의 혁신행정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혁신문화를 일상에까지 확산시키자는 뜻도 있었다. 마지막 날인 10일, 행사를 준비한 시민정책담당관실 최재필(49) 주무관이 전시를 보러 온 상아초 5학년 문우진(11) 군과 ‘혁신’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최 주무관은 일찍이 서구 캐릭터인 ‘서동이’를 만들며 혁신행정을 실천해 온 공무원이고, 문 군은 공중파 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서 활약하는 텔런트이자 인천시 홍보대사다. 그들이 나눈 대화를 정리했다. 전시는 끝났지만 인천시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영상 보기



행사를 준비한 최재필 주무관과 전시를 보러 온 문우진 군이 포즈를 취했다.



### 공무원 아저씨 ‘인천, 혁신을 디자인하다’는 어떤 행사인가요?

시청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시민들을 위해 하는 일 중에서 좀 더 새롭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냈던 일들을 시민들께 알려드리려고 전시회를 준비했지요.

### 혁신행정은 무슨 말인가요?

‘혁신’이라고 하면 이게 뭐지? 하면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이 금방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콜롬부스의 달걀’처럼 해오던 방식대로, 주어진 길대로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생각을 바꿔보고 다르게 시도하는 게 혁신이에요.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은 뭘 불편해 할까, 뭘 원할까를 늘 고민하며 조금이라도 새로운 행정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걸 혁신행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우리 인천시가 이전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난해 1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나요?

시민들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민선 7기’ 인천시에서는 혁신을 가장 중요한 숙제로 정하고 행정의 모든 분야를 혁신하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것이라도 시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했지요.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등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도 계속했지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등 일상생활에서 직접 혁신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인천시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연구하며 적극적으로 일을 해오고 있어요. 지난해 혁신평가에서 전국 1등을 할 수 있었던 건 이같은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도 일상생활에서 혁신을 적용할 수 있나요?

우진 군 같은 어린이들도 학교생활이나 친구들과 놀면서 불편하거나 안 좋아 보이는 게 있을 때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 생각하는 게 혁신의 시작이 되겠죠. 우진 군은 연기자니까 남들과 다른 연기를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혁신이라는 것이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아주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인천 시민 모두가 혁신한다면 더 즐겁고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 모두 혁신하는 도시 인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개항장의 숨은 보석, ‘제물포구락부’

대한제국의 외교 공간으로, 6·25전쟁 직후 피폐해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했던 ‘제물포구락부’가 인천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 단장했다.

코로나19로 제한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인문 강좌와 강연, 음악 감상회 등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를 제공하는 열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취재 영상 보기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인천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7호인 제물포구락부

### 우리나라 최초의 ‘구락부’

중구 송학동 자유공원 남쪽 계단 아래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2층 건축물. 격자무늬의 나무 창틀, 자줏빛 목직 커튼 사이로 보이는 노란 샹들리에의 불빛은 외국 영화 속에서나 볼직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대한제국 시절 외국인들의 사교장이었던 ‘제물포구락부’. 이 건축물의 원래 명칭은 ‘제물포클럽’이며 구락부俱樂部는 클럽Club의 일본식 음역어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말이다. 러시아 출신 건축가 세레딘 사바틴Afanasy Ivanovich Seredin-Sabatin이 1900년에 설계하고 1901년에 완공한 2층 구조의 벽돌 건물인 제물포구락부는 서울 정동구락부보다 3년 앞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구락부다.

1883년 제물포항이 개항한 후 인천에는 세계 각국에서 외교관, 상인, 선교사, 여행가들이 밀려왔다. 청나라 상인들이 설탕, 비누, 성냥 같은 물품을 팔아 큰 수익을 내자 영국, 독일, 미국 등 서양의 무역상사들이 속속 발을 들여놓았다. 당시 인천에는 외국인들의 공동 거주지였던 조계\*지가 있었는데, 제물포구락부에서는 조계지 안의 문 제뿐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국제 외교전이 비밀스럽게 펼쳐지곤 했다.

### 대한제국의 또 다른 ‘비밀 공간’

흔히 제물포구락부를 당대 서양인들의 사교 클럽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이 발행한 ‘제물포 각국 조계지 회의록’을 살펴보면 제물포구락부가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중요한 결정들을 논의했던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제물포구락부는 ‘제물포 정략’이라는 말이 유래될 만큼 열강들의 이권 다툼과 외교적인 활동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곳이다. 외형적인 모습은 사교 클럽이었으나 외교의 전초 기지였던



\*조계(租界): 외국인이 자유로이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는 구역



셈이다. 특히 제물포는 1883년 서구 열강들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주적으로 개항했던 곳인 만큼, 제물포구락부는 서양과 직접적으로 문화를 교류하려고 했던 대한제국의 의지가 담긴 곳이다. 당대 유명 인사들은 모두 제물포구락부에 모였을 정도로 외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복합 문화공간의 성격을 띠었다.

이후 각국의 조계가 철폐되면서 1913년 일본제국 재향 군인회 인천연합회 소속의 정방각精芳閣으로 불리다가, 1934년 일본부인회, 광복 직후에는 미군 장교 클럽, 1947년부터는 대한부인회 인천지회가 각각 활용했다. 1952년에는 시의회와 교육청, 시립박물관이 함께 사용하다 1953년 시의회와 교육청이 이전하고 1990년에는 시립박물관도 이전한다. 1990년 이후 이 건물은 인천 문화원과 중구문화원으로 사용됐고 건물이 갖는 이국적인 정취와 주변 경관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장으로 사랑받았다.



이원영 제물포구락부 관장

## 찬란한 시대를 이어가는 ‘가치 재생 공간’

“새롭게 단장한 제물포클럽 개회식을 6월 22일(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가졌다. ... 클럽 건물은 좋은 전망에다 넓은 당구장과 독서실, 그리고 근처에 테니스장을 갖추고 있어 성장하는 제물포 사회의 색다른 장식을 선사했다. 찬란한 제물포 시대를 기대하며...”

- 호머 베절릴 헐버트Hömer Bezaleel Hulbert : <코리안 리뷰> 1901년 6월호.

1901년부터 1906년까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간행된 월간 잡지 <코리안 리뷰>에는 제물포구락부 개관 당시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헐버트 박사가 ‘찬란한 제물포 시대를 기대하며...’로 글을 맺는 것을 볼 때 제물포구락부를 열강들의 탐욕스러운 정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기대한 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영(52) 제물포구락부 관장은 고종이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을 외교적으로 탈피하기 위해 제물포구락부를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보인다고, 대한제국의 마지막 외교 정책에 대한 재평가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물포구락부는 찬란한 과거와 희망적인 미래를 잇는 가치 재생의 공간,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활용돼야 합니다.”



인천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의 캐리커처로  
디자인한 드립백 커피



제물포구락부 2층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위)

음악회와 영화 감상이 가능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1층 내부. 석벽에 반사된 공명과 잔향 효과가 뛰어나다.(아래)

##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열린 공간’

이 관장은 그동안 창고로 사용했던 1층을 음악회와 영화 감상이 가능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몄다. 인천시립박물관의 초대 관장 석남 이경성 선생이 1953년 4월 현 제물포구락부에 시립박물관을 재개관하면서 1층을 개조해, 서울 미 공보관에서 영사기를 빌려와 시민들을 위한 무료 영화관을 열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다시 영화관으로 조성한 것이다. 평소에는 갤러리로 사용하고, 이경성 선생의 유지를 이어 영화 상영과 해설이 있는 재즈 감상회 등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1층은 석벽으로 인해 공명과 잔향 효과가 뛰어나다. 마치 동굴에 들어온 것처럼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동굴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다. 또 개항 당시 한반도에서 활동했던 외국인 72명이 남긴 민중과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기록들을 고증하고,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들의 이름과 캐리커처로 디자인한 드립백 커피를 브랜딩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문 강좌와 강연, 음악 감상회 등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물포구락부는 역사적으로 어렵게 접근하는 곳이 아니라 모여서 놀고, 배우고 느끼는, 오감이 즐거운 콘텐츠가 가득한 곳입니다. 또 상상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공간, 시민이 큐레이션하는 공간, 누구나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는 열린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시 문화재 활용 정책 1호 공간인 제물포구락부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인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김광성 화백의 제물포시대전’을 오는 8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수묵화의 깊고 열음의 미학적 정취를 듬뿍 담아 기록이 아닌 그 시대의 기억을 들여다볼 수 있게 구성했다. (jemulpoclub.com)



인천의 맛

인천만의 ‘그 맛’이 있다. 지역 음식에는 고유한 환경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 그릇 똑딱 비우고 끝낼 일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인천의 산과 들에서 자라고, 바다와 갯벌에서 펄떡이고 있을 먹거리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맛을 기록한다. 그 열한 번째는 굴업도와 덕적도 파시波市부터 오늘 신포동 골목까지 이어온 맛, ‘귀한 여름 생선’ 민어民魚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 민어

민어 民魚

귀한 여름 생선 민어



굴업도 민어잡이 어부상



신포시장 민어 골목 ‘경남횡집’의 제철남 대표



취재 영상 보기



오늘, 텅 빈 덕적도 북리항.  
한때 고깃배가 켜 없이 드나들던 부둣가엔,  
정적이 흐른다.(위)

1960년대 전국에서 온 민어잡이 배로  
북적이던 북리항(왼쪽)

## 만선滿船의 기억

2층 창밖 북리항北里港 너머로, 배를 기다린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펄럭이는 깃발. 민어잡이 배가 만선으로 출렁이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거친 파도와 바람에도 기어이 배를 타야만 하는 것이 뱃사람의 운명. 선주船主는 이제야 한시름을 놓는다.

덕적도 북리는 1920~1960년대 민어 파시로 돈과 사람이 넘쳐났다. “이맘때면 민어 잡으러 멀리 전라도 배들까지 죄다 북리로 몰려들었지. 배가 하도 많아서 선창에 댄 배들 사이를 징검다리 건너듯 다녔어.”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건져 올린 돈을 따라 육지 사람들도 흘러들어왔다. “부자 마을이었어. 다방, 술집 없는 게 없었지. 그 옛날 섬에 상설 극장까지 있었으니까. 약장수도 그렇게들 많이 찾아왔어. 허허.” 덕적도의 조선공이었던 강명선(78) 할아버지는 풍요롭던 섬의 기억이 아직 선명하다.

덕적도와 굴업도는 ‘민어의 섬’이었다. 1920년 굴업도 가까이 있는 장봉수도長峯水道는 민어가 차오르는 7~9월이면 전국에서 고기잡이배 500여 척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1923년 8월 불어닥친 태풍이 섬을 무참히 휩쓸었다. 그리고 바다로 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어기중漁期中의 굴업도 전멸堀業島全滅’. 그해 8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배 200여 척이 부서지고, 가옥 130호가 바람에 날아갔으며, 뱃사람 1,200명이 행방불명됐다’라고 쓰고 있다. 그렇게 굴업도가 지고 덕적도 북리가 ‘어업 전진 기지’로 떠올랐다.

민어, 조기, 도미, 가자미, 홍어, 새우, 갈치, 농어... 덕적 바다엔 사시사철 자연의 산물이 모여들었다. 민어가 하도 많이 나서 귀한지도 몰랐다. “날씨가 좋으면 동네 아이들이 소풍 삼아 고기잡이배에 따라 올라타곤 했어. 뱃일을 마치면 아이들 품에 민어 두세 마리씩 척척 안겨줬지.”



## 파시波市는 끝났다



금어기도 없이 안강망鰵網으로 민어를  
깡그리 굶어모았다. 평생 물고기가 있을 줄 알았다.  
그렇게 파시는 끝이 났다.

민어는 백성 민트자가 들어가는 이름과 달리, 예로부터 흔히 상에 올릴 수 있는 생선이 아니었다. 조선 시대 임금과 사대부가 즐겨 먹던 귀한 어종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비싼 값에 일본으로 팔려나갔다. 하지만 덕적도에선 양반, 평민 할 것 없이 민어를 즐겨 먹었다. 민어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중국 발해만渤海灣에 주로 서식한다. 이들 바다는 수심이 40~120m 내외로 갯벌이 있어 젓새우가 살기 좋다. 먹이가 풍부하니 물고기도 물려들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남 신안과 인천에서 민어가 났다. 하지만 자연환경이 달라지고 물고기를 마구 잡아들이면서, 바다가 말라갔다. 이제 덕적도에서도 민어는 금값이다.

“당시 선주들은 자식에게 공부 대신 배 부리는 걸 가르쳤어. 물고기가 넘쳐났으니까. 금어기도 없이 안강망鰵網으로 고기를 깡그리 굶어모았지. 갈치 치어가 잡히면 어묵으로 만들어 먹을 정도였으니까. 평생 물고기가 있을 줄 알았던 게야.” 그렇게 파시는 끝이 났다. 민어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섬을 떠났다. 강명선 할아버지도 1983년 먹고살 길을 찾아 물을 밟았다, 예순이 넘어서야 다시 섬으로 돌아왔다. “지금이 한창 배가 물려올 때야. 민어 잡으러.” 밀물처럼 밀려드는 그날의 기억.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은 짙어져만 간다.

강명선 할아버지는 1950~1960년대 목선을 만들던 조선공이었다. 당시 어업 전진 기지인 덕적도에는 조선소가 세 곳이나 있었다. 그의 아버지와 형들은 배를 부렸다.(위)

‘민어잡이, 선주의 딸’ 복리 할머니들. 어린 시절엔 부둣가에서 아버지가 잡아 온 민어를 팔리며 지키는 일이 지겹기만 했다. 오늘 그날처럼 풍요롭진 않아도, 여전히 덕적도가 최고다.(아래)



## 낡은 그물로 건져 올린 시간

북리 작은 쑥개에는 옛 선주 집이 화려했던 그날을 애처롭게 붙잡고 있다. 세월을 견디다 못해 바스러질 것 같은 몸체가 푸서리 위에서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다. 6·25전쟁 때 황해도에서 덕적도로 피란 온 선주가 살던 집이다. “저기 다 부서진 집이 소창무네야. 당시 배를 예닐곱 척 부렸어. 선주 중에서도 베테랑이었지. 돈을 많이 벌어서 물으로 나가 극장 사장도 하고 그랬어.” 복리 사람들이 선주 집으로 쳐주는 곳이다. 다른 집들은 개조했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는 것. 그 집 가까이에는 버려두어 낡아 빠졌을지언정 형체를 갖춘 빈집이 있다. 어르신 말씀에 의하면 민어잡이 배를 부리던 이기조가 살던 집이다. 여름 한낮인데도 으스스한 한기가 감돈다. 부의 상징이었던 2층집. 오늘, 뼈대를 드러내고 군데 군데 거미줄이 늘어진 공간엔 버려진 어구가 아무렇게나 나뒹군다. 뼈격대는 나무 계단을 밟고 2층을 올라다본다. 문과 벽이 없고 사방으로 창이 나 있다. 창 너머로 부둣가를 바라보며, 선주는 난바다로 떠난 배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으리라.

빈집 모퉁이엔 긴 시간이 촘촘히 엮인 면사綿絲 그물이 몸을 웅크리고 있다. “우웅~ 우웅~” 한여름 민어 떼 우는 소리가 덕적 바다 깊숙이에서 들려오면, 섬사람들은 이 그물을 던져 삶의 희망을 낚아 올렸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역사는 남는다. 창 너머 바다에서 민어 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어둠 속으로 침잠하는 폐허에 한 줄기 햇살이 비집고 들어온다.

민어잡이 배를 부리던  
이기조가 살던 2층 집(위)

옛 선주집 내부. 선주는 2층 창 너머로  
바다로 떠난 배가  
만선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아래)



## 여름, 단연 민어 民魚

인천 바다에서 민어는 사라졌다. 1920~1960년대 굴업도와 덕적도 바다를 누비던 민어는, 남쪽 바다 신안과 목포로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먹어도 맛있고 그리워지는 맛으로 남았다. 신포시장 오래된 골목,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역사를 이어가며.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신포시장 민어 골목



● **경남횃집**  
중구 우현로45번길 24-1 ☎ 032-766-2388  
신포시장 골목엔 경남, 화선, 덕적, 신포 네 곳의 민어 음식 전문점이 그 옛날 민어 파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민어는 버릴 게 없는 생선이다. 살, 부레, 껍질 모두 맛이 색다르다. 기름장에 찍어 먹어야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

민어탕은 '일품 복달임 음식'. 맛이 기름지면서도 담백하고, 농후하다.

광어, 우럭, 민어를 사다 바로 회를 떠서 팔 때였다. 테이블 하나 있는 작은 횃집이 열 군데도 더 몰려 있었다. 경남횃집도 그렇게 시작했다. 아들 제형남(43) 씨는 장사하는 어머니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신포시장 한복판에서 자랐다. “할머니 가게에 있으면 손님들이 천 원짜리 한 장씩 손에 쥐어주곤 하셨어요.” 그때의 손님들은 여태 이 골목으로 발걸음을 한다. 그가 10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묵묵히 가업을 잇는 이유다. 오늘 신포시장 골목에는 민어 전문점 단 네 곳이 남아 있다. 민어는 전남 신안 임자도와 목포에서 들어온다. 산지는 아니지만, 맛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사람들로 명맥을 잇고 있다.

민어는 성질이 급하다. 바다에서 잡아 올리는 순간 죽어버린다. 바로 피를 빼고 숙성시킨 선어鮮魚가 활어보다 맛있다. 주인장이 냉동고 얼음 무더기에서 이틀간 숙성시킨 민어를 꺼내 다듬는다. 네 뺨 이상은 되는 거대한 물고기를 다루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다. 몸체는 배와 등 쪽 살로 이등분하고, 부레를 정성스레 손질한다. 껍질도 상하지 않게 포를 떠낸다. 그 정갈하고 야무진 솜씨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다.

요즘 민어 암컷은 알이 가득 차올랐다. 탕으로 끓이면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 생선인데도 육고기 특유의 깊은 맛이 난다. 수컷은 윤기가 자르르 살이 찰지고 감칠맛이 돈다. 신선하게 회로 먹어야 제맛이다. 살결을 따라 두툼하게 썰어낸 뱃살과 등살, 그 위에 껍질과 부레를 가지런히 올린 한 접시. 부레는 ‘민어의 꽃’이다. 민어를 10이라 치면 부레가 9라고 했다. 쫄득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입맛을 돋운다. 껍질은 또 그대로 쫄쫄깃깃하고 고소하다. 뱃살은 담담하면서도 달짝지근 구수하다. 두툼한 민어 살이 깊고 묵직하게 입안을 파고든다. 그 옛날 민어가 나던 풍요로운 덕적 바다가 밀려든다.



‘경남횃집’의 어머니 김연의 씨와 아들 제형남 씨. 김 씨는 민어 파시로 흥청대던 덕적도 출신이다.



복날을 하루 넘기고, 신포시장 민어 골목을 찾았다. 음식 냄새로 후미진 동네에 모처럼 활기가 인다. 민어는 여름 생선이다. 남해에서 겨울을 나고 7~8월 산란기에 서해 연안으로 올라온다. 이쯤 민어는 살이 한껏 차오르고 맛이 짭 들어차 몸값이 치솟는다. 그래서 예로부터 ‘일품 복달임 음식’으로 귀히 여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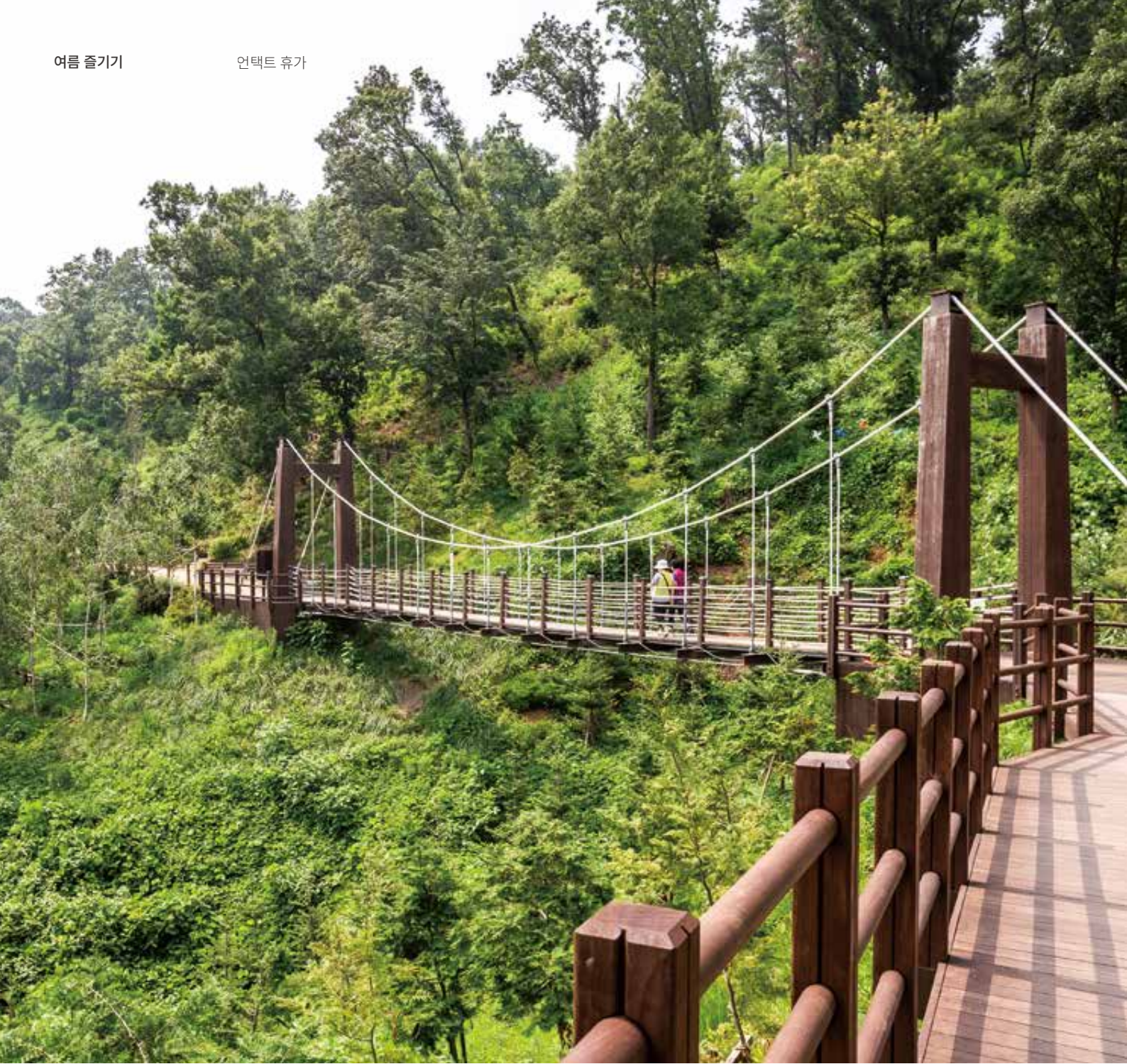
김종선(71) 할아버지는 복날인 어제, 신포시장 민어 식당에 자리를 예약하느라 꽤나 애를 먹었다. 한 끼로는 아쉬워 오늘도 가게를 찾았다. “여름 보양식으로 민어만 한 게 없지. 이 집 역사가 긴데, 변하지 않고 맛을 간직해 왔어.” 입이 기억하는 추억은 질긴 법이다. 일흔한 살의 노신사는 30대부터 드나든 단골 음식점에서, 때론 달고 때론 쓰디쓴 하지만 행복했던 인생을 곱씹는다.

‘경남횃집’은 60여 년간 삼대가 신포시장을 지켜왔다. “처음엔 뚝배기에 민어탕을 담아 단출하게 팔았어요. 그러다 큰 냄비에 푸짐하게 끓여냈지요. 그때 쓰던 냄비가 아직 있어요.” 김연의(68) 씨는 1982년 시어머니가 하시던 식당을 이어받았다. 시장 한가운데 어시장이 열리면 상인들이



취재 영상 보기





계양산 출렁다리

# 올여름 휴가는 ‘언택트’

코로나19가 여름휴가 트렌드마저 바꾸고 있다. 올해 휴가의 핵심은 ‘언택트(Untact·비대면)’다. 언택트 바람에 홈캉스(Home+Vacance),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 등의 신조어가 생겨나면서 ‘휴가=여행’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시끌벅적한 장소 대신 타인과 마주치지 않고 가족이나 연인끼리 조용히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언택트 바캉스 방법을 소개한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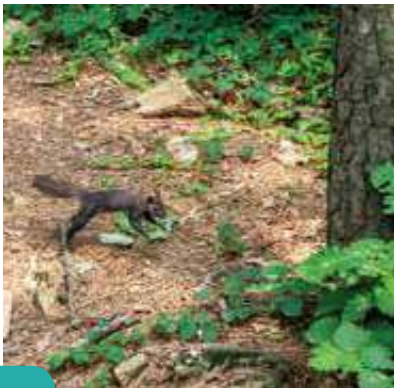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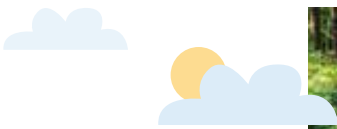


## 가벼운 마음으로 울창한 ‘숲’ 즐기기

오랜 ‘집콕’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여름휴가마저 무미건조하게 보낸다는 것은 형벌이다. 이럴 땐 돛자리나 그늘막 하나 들고 가까운 산이나 숲을 찾아보자. 계양산은 등산 코스로도 인기가 있지만, 길이 험하지 않고 평탄해서 누구나 가볍게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 펼쳐져 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과 어린 꼬마들도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 무장애길과 피톤치드 가득한 치유의 숲 등 코스별로 즐길 거리도 다양하다. 계양산 북쪽, 목상동 토속음식마을에서 시작하는 솔밭 길은 울창한 소나무 숲 속과 이어져 돛자리를 펴고 솔향기를 맡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스펀지를 깔아놓은 듯 폭신평신했던 솔밭길을 따라 하늘 향해 길게 뻗은 소나무 숲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에 적당하다. 뽕뽕하게 우거진 수목 아래 몸을 누이고 쉬노라면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한여름 작열하는 태양도 한결 부드러워지니 자연바람을 찾아 나선 이들에겐 최고의 휴식처다.

### 하나 더!!

숲이나 산에 갈 때는 벌레 방지 스프레이를 뿌리고  
자외선차단제 챙기기. 집에 돌아올 때 쓰레기 정리는 기본!



목상동 솔밭







## 돈·시간 절약 집에서 즐기는 ‘홈캉스’



멋진 물놀이장으로 변신한 베란다.

괜히 밖에 나가 고생할 것 같다면 오히려 집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집이라서 안전하고, 집이라서 편안한 홈캉스를 즐겨보자. 휴가 느낌 물씬 나도록 집안에 텐트를 치거나 캠핑 의자를 펴놓고, 베란다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니 워터파크를 만들면 어느새 집은 근사한 휴가지로 변신한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물놀이장이 최고예요.” 지난해 여름 주말마다 아이들과 수영장을 찾았던 이유미(39, 효성동) 씨는 최근 베란다를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으로 꾸몄다. “규모는 작지만 베란다에서 물놀이를 해보자고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기엔 집에서 휴가를 즐기는 게 오히려 맘이 편해요.” 오랜만에 늘어지게 늦잠도 자고, 여유롭게 식사도 하고, 신나는 여름 음악에 시원한 음료수 한잔이면 더운 여름도 저만큼 물러선다.

### 하나 더!!

휴가이니 집 근처의 맛집 탐방 혹은 맛집 배달 등으로 입도 즐겁게. 집에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미니 영화관을 만들어 그동안 못 본 영화 몰아보기도 색다른 재미.



블랙트리 캠핑장



## 거리 두기 실천하는 ‘슬기로운 캠핑 생활’

‘거리 두기’를 통한 안전 여행이 가능한 캠핑도 인기. 그중에서도 모든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글램핑’이 대세다.

한여름 밤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한적한 숲속에 자리한 영흥도 ‘블랙트리’가 제격이다. 고요한 여름밤, 자연의 소리가 청아하게 맴돌고 별빛이 쏟아지는 감동의 세계가 펼쳐진다. 환상적인 야경을 만들어내는 캠핑촌의 불빛들, 기운을 낮춰주는 울창한 초록 숲, 새소리, 곤충 소리 등 자연의 기운은 도심에서 맛보지 못한 감미로운 휴식을 선물한다.

### 하나 더!!

밤 11시부터는 서로의 안전과 조용한 캠핑을 위한 매너타임 시작. 늦은 시간까지 떠들거나 불을 켜는 건 자제해 주세요.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불면 자동차극장은 상상플랫폼 창고 안에서 운영된다.

“글램핑은 캠핑 분위기가 나면서 일단 모든 게 갖춰져 있어 부담이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실내보다는 여기처럼 탁 트인 야외 숙소가 더 낫지 않을까요?” 동생들과 ‘블랙트리’를 찾은 이나린(24, 가정동) 씨는 글램핑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이 가능해 안심된다고 말한다.



##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즐기는 ‘자동차 극장’

한여름 밤, 더위를 식히며 자동차에서 영화 감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주말 자동차 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 내항 8부두 임시주차장에 들어서면 가로 16m, 세로 8m 대형 스크린이 먼저 눈길을 끈다. 극장 출입구에서는 줄지어 들어오는 차량의 운전자, 동승자를 상대로 발열 체크를 하고, 휴대용 손 소독제를 나눠준다. 영화는 금·토·일요일 하루 1회씩, 차량은 100대 이하 규모로 운영되며, 강풍이 예상되거나 비가 내리면 상상플랫폼 창고 안에서 상영한다. 라디오 주파수로 채널을 맞추고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감상하기에 음질은 방 안에서 듣는 것처럼 선명하다.

“몇 달째 영화관을 가지 못했어요. 일반 영화관을 가기는 찜찜한 점이 있어 자동차 극장을 찾았는데, 차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타인과 접촉할 일도 없으니 마음이 편하네요.” 이지은(35, 구월동) 씨는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 하나 더!!

자동차 극장에선 이동을 최소화하고, 화장실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기본! 영화예약은 전용 홈페이지([incheoncarmovie.or.kr](http://incheoncarmovie.or.kr))에서. 인천 시민은 무료 관람.



인천관광공사는 코로나19를 피해 청정한 지역에서 안전하고 여유롭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언택트 관광지 10곳을 선정했다. 강화 교동도-대릉시장, 망향대, 석모도-민머루해변, 보문사, 동검도-강화나들길, 캠핑, 예술극장, 선녀바위&거잠포-일출, 일몰, 경인아라뱃길-자전거 라이딩, 캠핑, 계양산 둘레길=트레킹, 꽃마루, 송도센트럴파크-수상 체험, 야경 명소, 신·시·모도-자전거 라이딩, 배미꾸미 조각공원, 이작도-폴딩, 갯티길, 굴업도-백패킹 등 비교적 여유롭고 안전한 여행지다. 해당 지역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들기도 했다.





INCHEON COMMUNITY GARDEN

## 공동체를 육성하는 도시 텃밭

텃밭이라고 하면 아직도 주말 농장 정도의 개인적인 취미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도시 농업’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화되면서 텃밭의 공익적 기능이 도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떠올랐다. 인천도 2018년 담당 부서인 도시농업팀이 생기면서 도시 농업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미국의 시애틀은 파-패치 커뮤니티 가든(P-Patch Community Garden)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텃밭 정책을 197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인천의 도시 농업이 참고할 만한 사례다.

글 김충기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 사진 김충기, 김진송 시 도시농업팀장



남동공공주말농장(왼쪽), 거북이 텃밭 치유 학습 지원 프로그램(오른쪽)

### 인천의 도시 농업, 공영 텃밭

전국의 도시 농업 활동이 민간에서 먼저 시작됐듯이 인천도 2007년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이 늘어졌고, 2011년 남동공공주말농장을 시작으로 자치구에서 도시 농업 정책을 확대해 온 결과 2020년에는 7개의 공영 텃밭이 운영되고 있다.

텃밭은 매년 2~3월 각 자치구에서 참여자 모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텃밭 농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인천시와 자치구에서는 도시농업지원센터 2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인천농업기술센터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이를 통해 매년 도시 농업 교육, 자재 및 종자 보급, 텃밭 설치 등을 통해 인천시의 도시 농업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가 개관해 교육 시설과 체험 시설을 갖추고 도시 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민간단체로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에는 11개의 도시농업단체들이 활동 중이다.



SEATTLE COMMUNITY GARDEN VS







연수구 송도 석산  
힐링 공간 도시 텃밭(위)

1973년 조성된 최초의  
파-패치 커뮤니티 가든인  
피카르도 팜(오른쪽)

VS



시애틀의 텃밭, 파-패치 커뮤니티 가든

시애틀은 1973년 피카르도 팜의 일부를 시민들이 농사짓는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으로 만들면서 텃밭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의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후 시에서 지원하는 텃밭의 이름을 파-패치 P-Patch라고 부르게 된다. 마을공동체국(Department of Neighborhood)에서 공동체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016년 12월 기준 88개의 텃밭 3,055개 구획에서 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최근 시애틀은 공원과 녹지 공간을 위한 특별세(Parks and Green Spaces Levy)를 통해 1억4,600만 달러를 조달했는데, 이 중 200만 달러를 새로운 텃밭 조성에 투입해 28개의 신규 텃밭을 만들었다.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도시 텃밭

최근 인천의 도시 농업은 텃밭 농사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확

장되고 있다. 주말 농장 형태의 텃밭이 초창기 도시 농업이라면 최근에는 융·복합 기능을 하는 텃밭으로 진화하고 있다. 생태·생명·먹거리·환경 교육 측면에서 학교 텃밭은 중요한 도시 농업의 역할 중 하나다. 부평구와 미추홀구가 학교 텃밭 교육을 지원하고, 남동구는 도시농업지원센터가 학교 텃밭을 지원한다. 올해 인천시가 처음 시작한 ‘거북이 텃밭 치유 사업’은 장애가 있는 특수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복지와 결합한 사업이다. 지난해 인천시 3곳의 공영 텃밭에서는 야외 영화를 상영하는 ‘텃밭 영화제’가 열렸고, 주말마다 청소년 텃밭봉사단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이 푸드뱅크와 연결되어 기부되기도 했다. 미추홀구는 빈집 터에 텃밭을 조성해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 시민들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체 텃밭들이 마을 만들기 사례로 여러 곳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2020년 인천시 자치구별 공영 텃밭 운영 현황			
텃밭 이름	위치	시작 연도	담당 부서
남동공공주말농장	남동구 남촌동	2011	남동구청 농축수산과
사랑나눔텃밭	연수구 연수동	2012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행복나눔텃밭	연수구 송도동	2012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송도석산텃밭	연수구 옥련동	2019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갈월샘텃밭	부평구 갈산동	2017	부평구청 기후변화대응과
부영텃밭	부평구 산곡동	2018	부평구청 기후변화대응과
청천텃밭	부평구 청천동	2019	부평구청 기후변화대응과
어울림텃밭	미추홀구 주안동	2017	미추홀구청 공원녹지과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생태적으로 건강한 농사를 위해 빗물을 이용한 낙엽 퇴비 만들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이를 위해 도시 농부 학교, 토종 종자 나눔, 특강, 텃밭 컨설팅 및 코디네이터 활동으로 다양한 도시 농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도시 농업 전문가도 양성하고 있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

시애틀은 공동체 텃밭 자체가 지역사회를 묶어주는 주요 기능을 할 수 있게 시민 주도의 텃밭 운영을 지원한다. 이런 주요 장치가 바로 연간 8시간의 자원봉사다. 시애틀은 텃밭 회원이 되면 1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 시간이나 텃밭을 방치하지 않고 가꾸는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 대부분의 커뮤니티 가든은 양봉장, 퇴비사, 빗물 이용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기부 텃밭(53개소)을 별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실제 시애틀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커뮤니티 가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973년부터 공동체 텃밭의 농부들은

- 공동체를 성장시킨다.
- 시민 참여를 육성한다.
- 유기농 농사 기술을 연습한다.
- 환경 윤리를 육성하고 사람들의 삶과 자연을 연결한다.
- 지역, 유기농 및 문화적으로 적절한 음식에 대한 접근을 개선한다.
- 경관을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되살린다.
- 교육 및 실무 경험을 통한 자립개발 및 영양을 개선한다.
- 어려운 이들에게 채소를 제공한다.
- 토종 채소, 허브, 꽃을 보존한다.
- 농사와 요리로 세대 간 문화 간 이해를 높인다.

인천의 도시 농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도시 텃밭은 꽤나 유용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자투리를 녹지로 만들고 채소의 이동 거리를 줄이며,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관계를 쌓는 공간이다. 이는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의 역할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사회적인 보건 의료 비용도 낮출 수 있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하고 적응하는 데 도시의 생산 녹지는 다양한 위기의 완충 역할을 할 것이다. 텃밭을 통한 공동체의 형성으로 더 살기 좋은 인천이 되길 꿈꾸어본다.



## 백년대계를 위해 걸어온 100년

세상 모든 학교는 귀하다. 하나 그 중에서도 특별한 전통과 저력을 품은 곳이 있다. 학교를 통해 도시를 들여다보는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그 세 번째 등갯길을 따라 강화로 가는 다리를 건넜다. 지난 7월 100주년 명문의 반열에 오른 길상초등학교. 단군신화가 살아 숨 쉬는 정족산 아래에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그 길을 고석현(43회 졸업) 총동문회장과 함께 걸었다.

글 전규화 자유기고가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1920년 7월 10일 사립 진명학교로 문을 연 후 2020년 개교 100주년을 맞은 길상초등학교 모습

### 반만년 역사 깊은 삼랑성 기슭에

예년 같지 않은 섬 풍경을 무심히 스쳐지나 학교로 간다. ‘전등사’를 가리키는 표지판 따라 착실히 운전대를 돌린다. 다다른 곳은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국내 최초 사찰 전등사가 자리한 정족산이 길상초등학교를 휘감고 있다.

‘반만년 역사 깊은 삼랑성 기슭… 정족산 저 성들에 반석과 같이…’ 고석현 총동문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교가를 읊조린다. 사적 제130호 삼랑성은 그 옛날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아올렸다 전해지는 성곽이다.

“정족산은 강화의 진산(鎭山) 중 하나입니다. 그 깊은 정기 흐르는 좋은 터에 1920년 7월 10일 개교한 길

상초등학교가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학교는 드물지 않다. 하지만 길상의 100년은 특별하다. 한때 10만 명에 달했던 강화의 인구는 점점 줄어 7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저마다의 이유로 섬을 떠나 물을 향한 사람들과 줄어드는 아이들. 도심과는 사뭇 다른 상황 속에서 지켜온 긴 세월은 총 8,938명 ‘길상인’들의 자부심이 되기에 충분하다.

1906년 조선성공회가 설립한 진명학교가 전신인 길상초등학교는 1920년 5월 길상공립보통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고 같은 해 7월 사립 진명학교로 개교 후 1996년 길상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37년 졸업 사진



1966년 체육 시간 풍경



지나온 100년, 다시 올 100년

교문을 들어서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개교 100주년 기념비가 섰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장을 지낸 동문 김용철 교수가 도안과 설계를 맡았고,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총동문회가 부담했다. 여기에, 교직원들의 관심과 협조는 기념비에 굳건함을 더했다.

“길상은 오래전부터 학교와 동문회 간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은 학교에 큰 애정을 갖고 늘 앞장서서 함께합니다.”

성대했어야 할 100주년 기념식은 세상의 분위기 탓에 조촐하게 치러졌다. 애석하게도 행사 당일 비까지 내렸다. 하지만 동문들의 얼굴은 밝았다. 소풍이나 운동회 등 큰 행사가 열리는 날마다 비가 내렸던 전통 아닌 전통을 기억하는 이들이었다. 과거 학교에 연못을 만들 때 승천하려던 용을 붙잡아 매년 중요한 날이면 하늘이 비를 내린다는 이야기는 오랜 동문들 사이에서만 전해지는 설화다.

“마을 주민들, 나아가 모든 강화 사람들의 안전이 우선이기에 기념비 제막 정도의 간단한 행사로 마무리했습니다. 대신 학교와 의논해 우리 학교 자랑하기, 길상초로 삼행시 짓기, 학교 홍보물 만들기, 길상의 100년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 등을 진행해 길상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아이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길상초등학교는 지난해까지 강화 지역 학생들을 위한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했다.

오래전 길상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세운 기념비. ‘큰사람’이라는 학교의 가치와 교가 가사가 새겨져 있다.



길상초등학교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트로피 진열장을 소개하고 있는 고석현 총동문회장

내실로 내일을 다지는 인천의 명문

섬에 있는 학교라고 그만그만하다 여기면 큰코다친다. 이는 길상초등학교의 생경한 등교 풍경에서도 알 수 있다. 스쿨버스 3대가 마을을 한 바퀴 휘돌아 전교생을 태워 한번에 학교로 쏟아낸다. 허나, 일주일에 하루만 등교하는 지금은 교직원들이 가장 자주 보고 싶은 모습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 아쉽다.

길상초등학교는 학업 면에서도 ‘강화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며 성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과 목동 등 교육열로 들끓는 지역을 제치고 전국 동시 진행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1위를 거머쥔 경험도 있다. 사교육이 판치는 교육 현실에서 담대하게 공교육을 밀어붙인 결과였다. 전국 단위 발명 대회 성적표 최상단에서도 길상초등학교의 이름을 찾길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요즘이 됐다.

체육 분야에서도 남다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야구를 변형시킨 종목인 ‘티볼Tee Ball, T-Ball’ 클럽을 운영하는 길상초등학교는 2018~2019년 연이어 인천시 우승과 전국 조별 리그 1위 등 탁월한 성적을 내며 전국 티볼 강자로 우뚝 섰다.

‘큰사람이 되자’. 길상초등학교는 100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학교의 가치를 앞으로 도 지켜갈 것이다. 새로운 100년의 시작점에서, 외형보다 내실을 다지며 진정한 명문의 반열에 오를 길상초등학교의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다.

길상의 100년 역사 속 인물들



수필가 조경희

월당 조경희 선생은 한국 수필 문학의 대명사다. 1914년 강화군 길상면 운수리에서 출생한 그는 한국수필가협회장,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장, 제2정무장관 등을 역임했다. 강화를 관청리에 위치한 강화문학관 2층에는 ‘조경희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조경희 선생이 강화군에 기증한 소장품 8,000여 점이 보관되어 있으며, 국내 수필 문학에 끼친 조경희 선생의 눈부신 업적을 확인할 수 있다.



작곡가 최영섭

‘누구의 주재런가 맑고 고운 산...’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명 가곡,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 최영섭도 길상의 역사와 함께한 인물 중 하나다. 1929년 강화군 화도면에서 출생한 그는 길상초등학교 3년 수료 후 창영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그리운 금강산 외 500여 곡의 주옥같은 가곡을 남겼으며, 한국작곡가협회장, 우리 가곡의 날 제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대한민국 문화 훈장(은관)을 수상했다.



# 인천시 정책해설만화

## 수도권매립지 해결방안

by 유사랑





## 자전거 한 대로 후지산을 무너뜨린 인천 사나이



시민 시장  
이홍복

“

광복 전에 엄복동이 존재했다면, 광복 후엔 이홍복이 있었다.  
엄복동이 조국을 잃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면, 이홍복은 6·25전쟁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둘 다 자전거 하나로 말이다.

”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후지산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의 건아 이홍복 선수가 마침내 후지산을 무너뜨렸습니다!” 1958년 일본 도쿄東京 사이클 경기장. 임택근 아나운서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긴급히 국내로 타전됐다. 인천 출신 사이클 선수 이홍복이 ‘제3회 아시안 게임’에서 개인·단체 종목 두 개의 금메달을 거머쥔 것이다. 2, 3위가 모두 한국 선수란 사실은 일본에 더 큰 충격을 안겨줬다. 관중석에선 태극기는 물론이고 북한의 인공기가 동시에 물결쳤다. 사상 최초의 남북 공동 응원이었다. “난 지면 잠을 못 자는 성격예요. 게다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경무대(청와대)로 초청했을 때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 사람에겐 절대 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 왜정 때 망명해 독립운동하시면서 일본이라면 이를 갈던 분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광복 전에 엄복동이 존재했다면, 광복 후엔 이홍복이 있었다. 엄복동이 조국을 잃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면, 이홍복은 6·25전쟁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둘 다 자전거 하나로 말이다.

“내 손으로 쇠를 구부리고 용접해서 만든 자전거로 논에 흙 갈고 운동했는데 금메달을 두 개나 땀으니 난리가 났지.” 일본 열도를 공황 상태에 빠뜨린 뒤 금의환향한 청년 이홍복은 귀국 후 경무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금메달 한 개를 대통령에게 선물한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애로 사항이 뭐냐고 묻길래 사이클 전용 운동장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보리에 강냉이 섞은 밥과 개떡 먹으며 운동하는 건 건널 만했지만, 자전거 탈 운동장은 꼭 있어야 했거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서울 마장동에 부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런데 추후 예산 문제로 유야무야 되면서 그의 희망은 실현되지 못했다고.

중구 유동에서 태어난 이홍복(87) 웅이 자전거를 처음 타기 시작한 때는 광복 이후인 영화초등학교 6학년 때다. 이후 자전거로 전국을 휩쓸던 그는 6·25전쟁을 겪

고, 1953년 정전과 함께 육군첩보부대(HID) 사이클 선수로 스카우트된다. “말하자면 군 소속 운동선수가 된 셈이지. 내가 아는 선수들을 데려와 아예 사이클팀을 창단했어요. 그렇게 5년 뒤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거야.” 세계 사이클계에 굵은 족적을 남긴 그는 서른세 살 때 은퇴를 한다. 제대와 동시에 영종도 조선소에 취직한 그는 후에 독일 회사에 취업, 한국을 떠나기도 했다. 기업도 못 만들던 사이클을 ‘수제’로 만들어 탈 정도로 손재주가 뛰어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흥초등학교 건너편 중구 제물량로 133에 지금의 자전거포를 차린 때는 독일서 귀국한 1975년이다. 이홍복이 자전거포를 차렸다는 뉴스를 접한 전국의 자전거 마니아들이 인천으로 몰려들었다. 우리나라 자전거 동호회란 개념도 그의 자전거포에서 태동한 것이다. 구순을 앞둔 이 웅은 여전히 자전거와 한 몸으로 살고 있다. 간판도 달지 않은 채, 손님이 찾아올 때만 문을 열어주는 그의 모습에서 ‘노장의 권위’가 살아 숨 쉬고 있었다.





2020 August


08

Culture Calendar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 참여로 중단됐던 일부 공연 및 전시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안전 수칙에 따른 안전한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전시	8월 7일(금)~13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소전시실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제12회 청관회전 8월 6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사진’ 공간을 열다 8월 7일(금)~13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제27회 한·중 서예 국제교류전 8월 21일(금)~27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소전시실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레프리카 체험전 8월 4일(화)~9월 23일(수)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3회 인천 시민공원사진전 8월 14일(금)~20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소전시실	판각사랑전 8월 21일(금)~27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인천 미술 섬 기행전 ‘덕적도’	이반디 개인전 8월 14일(금)~20일(목)	인천의 섬&무궁화꽃 사진전 8월 31일(월)까지 월미공원사업소 숲속갤러리

이달의 공연

06 목	12 수
살롱 콘서트 ‘휴’(休, HUE) 태히언&상흠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7시 30분 무료(사전 예약 선착순) ☎ 1588-2341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 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R석 1만원, S석 7,000원 ☎ 032-420-2079
08 토	13 목
2020 찾아가는 문화 마실 재즈로, 레트로 콘서트 ‘백 투 더 스윙’ 부평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오후 6시 무료 ☎ 032-500-2064	살롱 콘서트 ‘휴’(休, HUE) 호와호&타쿤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7시 30분 무료(사전 예약 선착순) ☎ 1588-2341
이정원 플루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3시 전석 1만원 ☎ 032-289-4275	14 금
09 일	2020 썸머 페스티벌 박종화 피아노 리사이틀 ‘동요 클래식이 되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 032-420-2737
이평화 이효원의 바람으로 통하다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 032-289-4275	

15 토	16 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전석 초대 ☎ 032-440-2527	2020 썸머 페스티벌 클래식 앙상블 ‘빈센트 반 고흐의 음악적 영감’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원 ☎ 032-420-2737
2020 썸머 페스티벌 클래식 앙상블 ‘빈센트 반 고흐의 음악적 영감’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원 ☎ 032-420-2737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응답하라 8090’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31
2020 썸머 페스티벌 오미선&나승서 ‘가곡, 시에 물들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원 ☎ 032-420-2737	

이한진 밴드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 032-289-4275	19 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9~20일 오후 7시 30분 VIP석 12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 032-888-9911	 
2020 커피 콘서트VI 김현철 ‘달콤한 여유’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 1588-2341	20 목
살롱 콘서트 ‘휴’(休, HUE) 데이먼&추승엽(악동)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7시 30분 무료(사전 예약 선착순) ☎ 1588-2341	22 토
2020 인천음악제 ‘관악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전석 초대 ☎ 032-873-7772	조경곤과 함께하는 잔치 한마당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31
23 일	인천청소년합창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무료 ☎ 032-440-4019

2020 인천음악제 ‘팝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전석 초대

① 032-873-7772

윤소희 비올라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① 032-289-4275

25 화

디 클랭에 플루트 앙상블

창단 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① 010-6355-2077

26 수

어린이 뮤지컬

‘도깨비를 빨아버린 엄마’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6~28일 오전 10시 30분

전석 1만원

① 032-866-6665

딕헤미리와 친구들의 음악회

학산소극장

오후 7시

무료

① 032-866-3993

27 목

살롱 콘서트 ‘휴’(休, HUE)

신나는 섬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7시 30분

무료(사전 예약 선착순)

① 1588-2341



테이블 인형극 ‘괴물 신드롬’

학산소극장

27일 오전 11시

28일 오전 10시·11시(단체)

29일 오후 2시·4시(개인)

전석 1만원

① 032-866-3993

28 금	29 토
인천시립무용단 기획 공연 Inside-Out ‘달빛나나니’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1만원 ☎ 032-420-2788	이은주의 춤 碧也(벽아)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42
오페라 아리아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42	박혜선 파이프 오르간 시리즈 27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 032-289-4275
30 일	이윤석 하모니카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 032-289-4275
2020 연극 전태일 ‘내 이름은 무엇이나’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7시 전석 2만5,000원 ☎ 032-423-0442	 
	



# 100년의 역사 품은 문화의 요람

미추홀도서관이 100년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추홀도서관은 일제강점기 1922년 1월 6일 자유공원 내 청광각淸光閣에서 인천부립도서관으로 개관했다. 청광각은 1884년 독일의 무역상사 ‘세창양행’이 관사로 지은 근대식 건축물이다. 도서관은 1946년 12월 중구 율목동으로 자리를 옮겼고, 1958년 인천시립도서관 설치 조례가 제정됐다. 2008년에는 도서관법에 따라 인천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됐으며, 이듬해에는 구월동에서 새 단장을 마친 후 미추홀도서관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2013년 송도국제기구도서관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청라호수도서관과 청라국제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을, 2019년에는 마전도서관을 분관으로 편입하며 외형과 내실을 모두 다졌다.

미추홀도서관이 100년의 역사를 기념해 기획 전시 ‘100년의 기록, 역사가 되다!’를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 1층 어울림터와 로비에서 9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 시와 의회, 도서관의 성장과 역사가 수록된 도서 44권과 사진 등 귀중한 자료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책 속에 수록된 변천사와 사라진 건축물을 비롯해 일제강점기 출판 도서, 수도권 최초의 한글 일간 종합 신문이었던 대중일보, 화가이자 수필가였던 천경자 화백의 여인 소묘 등 평소 열람이 어려웠던 자료들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61년 발간된 시립도서관지에 실린 ‘인천시립도서관의 노래’를 발견해 음원으로 복원했으며, 이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다.

## 미추홀도서관

위치 :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53  
홈페이지 : [www.michuhollib.go.kr](http://www.michuhollib.go.kr)  
문의 : 032-462-3900

## ‘100년의 기록, 역사가 되다!’ 기획 전시

장소 : 미추홀도서관 1층 어울림터와 로비  
기간 : 9월 27일까지  
문의 : 032-462-3900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천 시민 힐링 음악회

## 제5회 문학산 음악회 ‘드라이브 인(Drive-In)’ 콘서트

일시 : 9월 5일 오후 7시~9시  
장소 : 문학경기장 동측 주차장  
주제 : 달밤, 문학산성을 거닐다  
사전 예약 : [www.incheon.go.kr](http://www.incheon.go.kr)(선착순 접수)  
\* 8월 17일 오후 2시~8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문의 : 032-440-4476

2015년 10월 15일, 마침내 미추홀 고도市都 문학산 정상에 시민의 발길이 닿았다. 50년 만이었다. 우리 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문학산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공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천 시민 힐링 음악회로 9월 5일 막을 올린다. 문학산 음악회는 특별하다. 1년에 딱 한 번 야간에 산 정상에 개방한다는 점,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시민과 인천의 진산鎭山인 문학산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이번 음악회는 ‘달밤, 문학산성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문학산성은 시 기념물 제1호로 지정돼 있다. 문학산 정상부에 있는 돌로 만든 산성으로, 미추홀고성, 남산성 등으로도 불린다. 현재는 대부분의 성벽이 붕괴되어 그 모습을 모두 볼 수는 없다. 우리 시는 음악회를 통해 문학산성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5회 문학산 음악회의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드라이브 인Drive-In’ 공연으로 진행된다. 우리 시는 사전 접수를 통해 차량 200대분의 관람객을 모집하고, 발열과 해외 방문 이력 등을 꼼꼼히 체크해 공연 진행에 따른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비대면 공연의 아쉬움은 화려한 출연진으로 달랠 수 있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을 필두로, 국민 가수 심수봉, 테너 김현수와 소프라노 서선영,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가수 최정원, 남경주, 첼리스트 홍진호 등이 무대를 가득 채운다. 이번 공연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관람 가능하며, 당일 기상 상황과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국면 등에 따라 공연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이번 문학산 음악회가 인천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 11대째 태를 묻어온 인천

글 김사연



내 고향은 11대를 살아온 남동구 만수동 369번지, 셋골 부락이다. 내 어릴 적 만수동은 그야말로 시골이었다. 지금의 만수주공 임대아파트 자리는 논농사를 짓던 문전옥답이었고, 만수고등학교 자리는 참외밭이었다. 할아버지는 네 바퀴 마차에 실어 온 참외를 마당에서 선별한 후 참외전거리로 신고 가 파셨다.

‘만수초등학교’는 내 부친께서도 졸업하신, 역사 깊은 학교다. 만수초등학교의 봄 소풍은 돌말산 약사사가 단골이었고 간혹 배꼽산(문학산)으로도 갔다. 우연인지 그날은 꼭 비가 내렸지만 돌말산에 올라가 경인선 기차를 구경하는 것이 신났다.

송도중학교 시절엔 학교 근처에서 자취했고, 송도고등학교는 통학을 했다. 당시 교통편은 열악해 안양과 수원에서 오는 소신여객 버스와 소래에서 오는 버스를 놓치면 1~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후에 생긴 운연동행 16번 시내버스도 결행되면 건설훈련원 자리에서 간석오거리까지 걸어가 백마장에서 오는 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막차를 놓치면 간석오거리에서 만수동까지 터벅터벅 밤길을 걸었다. 당시 만수당약국과 로얄호텔 자리는 푸른 보리 이삭이 달빛 아래 춤추듯 너울거렸다. 만수동에 들어서면 봉분 앞면에 빨간 벽돌문을 만든 중국인 공동묘지에서 서늘한 바람이 내려왔다.

박 씨 집성촌인 박촌말 입구(하이웨이 주유소 건너편)엔 비류고개로 불리는 작은 동산이 있다. 건설기술교육훈련원 인천분원 자리는 사춘기 시절, 황혼에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시심詩心을 키우던 뒷동산이었다. 지금은 눈을 씻어도 볼 수 없지만, 공해에 찌들지 않았던 1960년대 중반만 해도 해질녘 서쪽 하늘엔 웅장한 궁전을 비롯해 각종 모양의 황금빛 구름 조각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농토를 팔지 않기 위해 동생부터 대학을 졸업시키려 인하공대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농사를 짓던 시절, 그때 만수고등학교 자리 참외밭을 논으로 바꿨다.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답이기에 날이 가물면 지금의 인천대공원 야영장 근처 연못에서부터 비닐 호스를 연결해 경운기로 물을 끌어왔다.

경운기를 운전한, 동네 아랫집에 사는 본관이 평창平昌인 이 씨는 긴 밤을 새우는 동안 1801년 신유박해로 순교한 베드로 이승훈 후손으로 살아온 뼈아픈 가문의 역사를 털어놓았다. 멸족의 위기를 모면한 그의 조상들은 천주교에 등을 돌린 채 목이 없이 문힌 이승훈의 묘에 그림자조차 얼씬거리지 않으며 대를 이어왔다. 비록 지금도 성당에는 나가지 않지만, 순교 당한 조상들의 세례명을 손수 써서 만든 십자가 비목을 무덤마다 꽂으며 비명에 간 새남터의 원혼들을 달래주었다고 한다.

인하공대에서 성균관대 약학대학으로 편입한 후 약사가 되면서 김포공항 입구에서 약국을 개업했다. 약국 상호는 고향인 만수동을 따서 ‘만수당약국’이라고 지었다. 이어 부천에서 인천으로 약국을 옮기는 동안에도 ‘만수당약국’은 변함없었다. 남동구약사회장을 거쳐 인천시약사회장에 당선된 후엔 약국을 폐업했다. 회장 직분을 소싯적 수행하려면 개인적 이권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객지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에 돌아오자 소꿉친구들과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 활을 쏘는 한량이 되었고, 훗날 인천대공원 내 남수정사두와 인천시궁도협회를 역임했다. 운이 좋아 16년 만에 돌아오는 전국체전 궁도대회를 임기 내에 계양구 다남공원 청룡정에서 치렀다.

지난해엔 한국문인협회 인천지회장에 당선됐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온 덕분에 약사, 궁도, 문인 세 단체의 회장으로 인천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다. 인천문인협회장으로 가장 보람 있는 사업은 인천지하철 1호선 역 스크린도어(안전문)에 인천 시민의 시詩를 게재하게 된 것이다. 서울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인천지하철 이용

객도 이런 문화적 혜택을 누렸으면 했는데 인천시의 지원과 인천교통공사의 협조를 받아 뜻을 이루게 됐다. 가을에는 시, 소설, 수필, 동화 등 시민 문예 공모전 작품을 인천문인협회에서 접수받고 심사해 인천시의 지원으로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 또한 인천 사랑의 일환이기에 긍지를 느낀다.

프랑스의 화가이며 시인인 베르네가 ‘인간은 타향에서 태어난다. 산다는 것은 고향을 찾는 것이다!’라고 했다면 나의 좌우명은 ‘사는 동안 선산을 지키며 내 고향 인천을 떠나지 않겠다!’는 신념뿐이다.



김사연은 남동구 만수동에서 나고 자랐으며 약사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1991년 <월간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한 이래 수필집 <그거 주세요> 외 6권의 저서를 펴냈다. 2014년 인천시문화상을 수상했으며 인천시약사회장, 인천시궁도협회장을 지냈다.



IMAGE NEWS

01

시민  
행복



#재난 상황 시 가정 돌봄 강화와  
#문화·여가를 통한 #코로나 블루 극복으로  
#시민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02

균형  
성장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로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겠습니다.

03

참여  
시정



#시민 소통 플랫폼과  
#감염병 조기 대응 체계 구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04

평화  
번영



#평화 경제 협력 인프라 조성과 #서해 평화 협력  
시대 선도 #남북 교류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 인천 뉴스 +

- + 우리 시는 최근 유충 사고가 발생한 공촌정수장을 밀폐형으로 개량하고, 시 관내 모든 정수처리시설을 식품공장 위생 상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 우리 시는 7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연 1회 8만원을 지급하는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 + 코로나19로 지난 2월 휴업에 돌입했던 월미바다열차가 8월 1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 +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일부를 올해 10월 일반 시민에게 처음으로 개방한다.
- + 인천 내항 1부두에 있는 옛 세관창고가 내년 초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창고 주변은 세관역사공원으로 조성된다.
- +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택시 호출 콜비 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
- + 우리 시는 제3연륙교를 올해 안에 착공하기 위해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고시했다.



NEWS BRIEF

공촌정수장 밀폐형으로 개량하고 ISO 22000 도입

우리 시는 최근 유충 사고가 발생한 공촌정수장을 밀폐형으로 개량하고, 시 관내 모든 정수처리시설을 식품공장 위생상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월 25일 인천 부평정수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수도물 피해 발생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수도물 시민신뢰 회복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시는 현황 보고를 통해 “현재 정수장, 배수지, 공급블록, 수송가로 이어지는 수도물 공급 경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더 이상 유충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급수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유충이 가정에서 일부 발견되고 있으나, 소화전 방류 등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어 조만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시는 수도물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공촌정수장을 오는 10월까지 밀폐형으로 개량하는 등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또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가정을 방문해 점검하는 ‘인천형 워터케어’를 8월부터 운영하고, ‘스마트폰 수질 공개’와 ‘온라인 시민시장실’ 등 시장과 시민이 직접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10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정수처리시설에 내년까지 식품공장 수준의 위생상태를 준수하는 ‘ISO 22000(식품경영 안전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부평·공촌수계의 노후 수도관을 2025년까지 교체한다.

상수도사업본부 032-720-2036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택시업계 콜비 지원금 확대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택시 호출 콜비 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콜 수신 건수에 따라 기존에 월 1만8,000원에서 2만8,000원을 지원받던 사업자는 130~170% 늘어난 월 2만3,400원에서 4만7,600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카드 이용 수수료를 100% 지원하고 있다.

시 택시화물과 032-440-3824

이동형 실시간 수질감시장치 시범 운영

우리 시는 폐수배출업소의 방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동형 수질감시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현재 인천지역 폐수배출업소 3,893곳 가운데 관련 법에 따른 수질측정기기(TMS) 부착 대상업소는 16곳(0.4%)에 불과하다. 시가 개발한 시스템은 폐수배출업소의 최종 방류구에 센서 타입의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해 오염도 측정값을 PC나 휴대전화 등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시는 폐수 무단 방류를 비롯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수질환경과 032-440-3708



공론화위, ‘소각장 현대화와 자체 매립지 조성’ 권고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해 인천 자체 매립지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인천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권고문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인천지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법적·과학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광역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로 새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체 매립지 입지 지역에는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적 보상으로 지원하도록 주문했다. 교수·변호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제1호 의제를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으로 정하고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공론화 시민참여단 속의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문을 작성했다.

시는 정책 권고문을 받은 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추진위원회와 368명의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권고사항이 관련 용역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시 시민정책담당관 032-440-2417

전국 최초 어르신 ‘효드림 복지카드’ 발급

우리 시는 7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연 1회 8만원을 지급하는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4만1,000명이며, 지원금 8만원은 지역 화폐인 인천e음 카드 선불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효드림 복지카드는 인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효드림 복지카드 신청은 오는 9월 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시 노인정책과 032-440-2813



영종도~청라 잇는 세 번째 다리 연말 착공



우리 시는 제3연륙교를 올해 안에 착공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시는 이번 결정에서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주항로를 고려해 제3연륙교 도로선형을 바꾸고 사용 형태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제3연륙교를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도 건널 수 있게 해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제3연륙교는 총길이 4.6km, 왕복 6차로이며 폭 3m의 보도와 자전거 겸용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6,800억원이며 연말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 시설계획과 032-440-1703

미래산업 육성 5대 전략 마련

우리 시는 최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미래산업육성 5대 전략을 마련했다. 5대 전략은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구축,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첨단산업 성장 고도화, 혁신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이다.

시는 이들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성장펀드 조성, 바이오 핵심 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립,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등 15개 과제를 마련했다.

시 미래산업과 032-440-3273





## 송도국제도시 완충녹지 5곳 추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공동주택 입주 가구가 많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에 완충녹지 5곳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완충녹지는 총 26억7,000만원을 들여 2만1,000m<sup>2</sup> 규모로 조성됐다. 송도국제도시에는 현재 까지 모두 32곳의 완충녹지가 조성됐으며 전체 면적은 44만7,000m<sup>2</sup>에 달한다. 인천경제청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2030년까지 송도에 29곳의 완충녹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청 032-453-7255

## 월미바다열차 8월 11일부터 운행 재개

코로나19로 지난 2월 휴업에 돌입한 월미바다열차가 반 년만에 운행을 재개한다. 인천교통공사는 8월 11일부터 월미바다열차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단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1회 탑승 제한 인원을 46명에서 17명으로 줄이고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한 승객만 탑승을 허용할 계획이다. 인터넷 예매는 월미바다열차 예매 전용 사이트(www.wolmiseatrain.or.kr) 또는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www.ictr.or.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 032-451-2164



## 9월 개최 예정 ADB 총회, 2023년으로 연기

송도컨벤시아에서 오는 9월 개최 예정이던 2020년 제 53차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연차총회가 2023년으로 연기될 예정이다. 우리시는 기획재정부가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외 참가자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각국의 여행 제한, 방역을 위한 행사 규모 축소 등으로 실효성 있는 연차총회 개최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개최 연기를 결정했고 지난 7월 3일 ADB 측에 연차총회 연기를 공식 요청한 결과 7월 13일 마닐라에서 현지 시각 오후 6시에 ADB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2023년 제56차 인천 연차총회 개최는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회원국 거버너들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9월 거버너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 마이스산업과 032-458-7224

## ‘외국인 친화 음식점’ 인증제 도입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외국인 친화조성 인증제’를 시범 운영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 17일까지 음식점들의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평가를 통해 11월 대상 음식점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영어 메뉴판 비치 여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종업원 근무 여부, 음식점 웹사이트에 영어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이다. 인증을 받은 음식점에는 표지판을 달아주고 외국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천관광공사 관광안내소, 인천경제청 여행 책자·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청 032-453-7663

## 내항 1부두 옛 세관창고 역사공원 변신

인천 내항 1부두에 있는 옛 세관창고가 내년 초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창고 주변은 세관역사공원으로 조성된다. 우리시와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7월 20일 인천 내항 1부두 내 옛 세관창고를 세관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주변 3,300m<sup>2</sup> 터를 세관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11년 건립된 옛 세관창고는 100년 넘게 인천항의 역사를 간직하다가 수인선 건설공사에 따라 2012년 해체된 뒤 같은 해 원래 위치에서 40m 떨어진 자리에 복원됐으며, 2013년에는 국가등록문화재 제569호로 지정됐다. 시 재생콘텐츠과 032-458-7322

## 야외 무더위 쉼터 86곳 운영

우리시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야외 무더위 쉼터 86곳을 운영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그동안 무더위 쉼터로 활용해 온 경로당 대신 환기가 잘되는 공원 내 나무 그늘 22곳, 교량 하부 5곳, 정자 59곳을 쉼터로 확보했다. 또 10개 구·군에 사업비를 지원해 그늘막 353개, 쿨링포그 29개, 쿨루프 22개, 정류장 에어컨송풍기 42개 등 폭염 저감 시설 446개를 설치했다. 시 재난예방과 032-440-3359

## 제물포 스마트타운에 ‘자활 카페’ 설치

우리시는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9월부터 제물포 스마트타운 내에 ‘자활 카페’를 운영한다. 자활 카페는 인천시 동구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며, 동구지역자활센터 소속 자활근로자 6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시는 현재 지역 공공시설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 매점과 구내 식당 등 자활사업장 26곳을 운영하고 있다. 시 자립정책과 032-440-1542

##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필요성·방안 등 공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중간보고회에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의료 수요 요구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한 필요성 및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는 등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영종국제도시에 적합한 종합병원 유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청 032-453-7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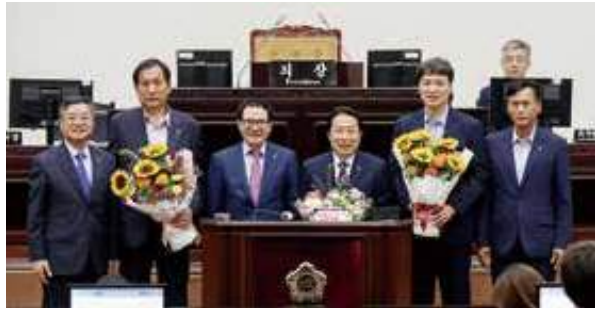
## 캠프마켓 10월 첫 개방, 야구장부터

우리시는 지난해 12월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 부지 21만m<sup>2</sup> 가운데 환경 정화에 지장이 없는 4만2,000m<sup>2</sup> 주변에 경계 펜스를 설치하고 10월 중 개방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방되는 부지는 미군이 야구장 등 체육시설로 활용하던 B구역 일부로, 시는 주한미군사령부·국방부와 협의해 경계 펜스 규격 등을 정했으며 9월 말까지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시는 우선 개방 부지에 주민참여공간인 ‘인포 센터’ 등을 만들어 캠프마켓의 역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 활용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시 부대이전개발과 032-440-4662



## COUNCIL NEWS

## 제8대 인천시의회 하반기 원구성... 새로운 출발



제8대 인천시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은호 의원이 선출됐다. 제1·2 부의장은 민주당 강원모, 백종빈 의원이 각각 뽑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2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하반기 의회를 개원해 의장단을 이같이 선출했다. 재선의 신은호 의원은 36표 중 30표를 얻어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강원모 의원은 제1부의장, 백종빈 의원은 제2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신 의장은 이날 당선 인사에서 “의원들의 지역발전 공약 사업과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집행부와 균형 잡힌 긴장 관계를 유지해 민선 7기 인천시와 8대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하반기 의정 목표를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로 정하고 겸손한 의회, 무한책임, 품격 있는 의회를 3대 전략으로 세웠다.

## 교육위, 인천예술고 증축공사 현장방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시교육청은 지난 7월 14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인천예술고 예술관 증축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교육위원장은 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재개된 예술고 예술관 증축 공사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향후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예술인의 꿈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인천시의회, 하반기 개원 행사 예산 반납

인천시의회가 하반기 개원 기념식을 취소하고 행사 예산을 반납했다. 시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반기 개원 행사 예산 86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업무추진비, 국외공무여행경비 등 6,500만원을 반납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작은 금액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다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과감하게 반납해 ‘코로나19’ 극복 재원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우기 대비 재해취약시설 현장 점검 실시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14일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부평소방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현장, 인천교매립지 배수펌프장 등 3개소를 방문해 재해취약시설을 확인하고 유관 기관의 재해예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폭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유관 기관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항상 경각심을 갖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사전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 산업경제위, 공촌정수사업소 운영 실태 확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상수도 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를 방문했다. 위원회는 현장 방문을 통해 수돗물 유출 민원과 관련해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운영상의 과실은 없는지, 공촌정수사업소 외 다른 곳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산업경제위원장은 “수돗물 관련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교통위, 남촌농산물도매시장 현장 점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악취문제가 발생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다. 위원회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쓰레기처리시설 작동 중단과 악취발생에 대한 원인 및 경과보고를 받은 뒤 악취 처리와 시설 재 운영에 대해 토의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교통위원장은 “쓰레기제거시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시 집행부에 주문했으며, 중도매인 조합장들에게는 “기계의 오작동이 아닌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고장이었던 만큼 분리배출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 기획행정위, 주요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8대 하반기 위원회가 구성되고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현장 등을 찾아 첫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침수방지를 위해 2017년 시작된 사업으로 총 178억원이 투입되어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응급환자 후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영종도 소재 ‘소방항공대’를 방문해 119특수구조단장으로부터 현황 및 현안 사항을 청취했으며, 소방대원의 복무환경 및 소방헬기 등 구조 장비를 점검했다.

이외에도 ‘계양방송통신시설’을 찾아 시설관리 상태를 점검했으며, 시 대변인으로부터 향후 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 &lt;인천의회저널&gt;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의회저널>에는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①032-440-6137~8 ②www.icouncil.go.kr



인천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인천의 이야기, 인천 시민 여러분의 색으로 채워주세요.

# 인천이 그리다 인천을 그리다

## 작가의 말 꿈꾸는 도시, 송도

녹색 자연을 그리며 설계하고 건설된 송도국제도시는 더 크고 포근한 미래를 꿈꾸게 한다. 우리의 미래는 모두의 공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고, 보다 나은 환경 조성과 모든 생명의 풍요를 위해 삶의 오염 요소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 작품은 자연과 동물이 어우러진 도시를 꿈꾸며 높이 보는 기린의 시선 너머, 길게 다리를 늘리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새의 몸짓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투영했다.



꿈꾸는 도시, Mixed Media, 72.7x60.6cm



그림의 선을 따라 드로잉한 후 채색해 보세요. 두 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 7월 드로잉 인천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정은희 남동구 선수촌로



김현 서구 숭빛로



양희 계양구 황어로



최시우 계양구 봉오대로



성희숙 연수구 용담로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드로잉 인천’ 보내는 방법

-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2) 이메일 : goodmorningic@naver.com
- 3) 기간 : 2020년 8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이달의 드로잉  
김진희 작가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19회에 걸친 부스 및 개인전을 열었으며, 200여 회의 국제전과 교류전, 초대전, 그룹전에도 참여했다. 현재는 인천미술협회, 인천여성작가연합회, 창조미술협회, 전업미술가회 등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이고 있다.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01 코로나 블루, ‘마음 검사’로 함께 이겨내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와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감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및 마음 건강 검사’를 무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노인 돌봄 시설 종사자 중 요양 보호사, 간호(조무)사  
검사 항목 :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 척도, 범불안 장애, 자살 위험도  
참여 방법 : ㉠ bit.ly/3fwJYcE 또는 QR 코드  
문의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 032-715-7682

02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우리 시에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6회 인천광역시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공모 부문 : 빅데이터·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신청 마감일까지 시연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만 신청  
참가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는 7년 이내의 스타트업에 한함  
신청 기간 : 8월 3일까지  
신청 방법 : ㉠ cafe.naver.com/datasmart  
문의 : 시 데이터혁신담당관 ㉠ 032-440-2363

03 우리 손으로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요

우리 시에서 시민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시행하는 인천 시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공모 내용 : 개인 및 단체의 재능, 노동력을 활용한 모든 공익 활동  
참여 자격 : 인천을 사랑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  
선정 인원  
\* 개인 : 최소 20명, 일 4시간, 주 20시간 이내  
\* 단체 : 최소 5팀, 일 40시간, 주 200시간 이내 (단체원 활동 시간 총합 기준)  
활동 실비 : 보조비 시간당 7,000원, 물품 구입비 월 10만원 범위 이내  
사업 기간 : 9월 1일~11월 30일(3개월)  
신청 서류 : 신청서, 활동 계획서, 단체원 명단,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접수 기간 : 8월 7일까지  
접수 방법 : ㉠ incheon1007@korea.kr 및 방문, 우편  
문의 : 시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4216

04 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응원합니다

청년 공간 유유기지 부평에서 VR 기기를 활용해 실제 면접처럼 훈련할 수 있는 VR 모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참여 기간 : 월~금요일(매시간 1명씩 선착순 예약 후 이용)  
참여 대상 : VR 모의 면접 훈련이 필요한 인천 청년  
지원 내용 : 직군 및 기업별 1만여 가지 콘텐츠 제공, 자가 피드백 통한 반복 연습 가능  
신청 방법 : ㉠ www.inuu.kr  
문의 : 유유기지 부평 ㉠ 032-363-3141

05 도시 성장 계획에 참여하세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현 민간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원 20여 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 도시 계획, 토목, 건축·주택, 교통, 경관, 환경, 방재, 문화  
응모 자격 : 인천·경기·서울 지역 대학(교)·연구기관·협회·단체·엔지니어링 회사 등에 소속된 자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활동 내용 : 2020년 9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역할 수행  
접수 기간 : 8월 10일까지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 hihyenju@korea.kr  
문의 : 시 도시계획과 ㉠ 032-440-4603

06 외국인 건강보험, 여기서 취득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외국인(재외국민) 서비스 향상과 건강보험 업무의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경인외국인민원센터 인천센터를 운영합니다.

대상 : 인천, 부천, 김포, 광명에 거주하는 외국인  
처리 업무 :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변경 업무, 제증명서 발급 등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우체국 7층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07 송도컨벤시아 민원 한번에 해결하세요

송도컨벤시아가 최초 대관 상담부터 계약 체결, 부대 서비스 등의 각종 서비스를 일원화해 제공하는 ‘ONE-STOP 고객지원센터’를 정식 오픈했습니다.



운영 시간 :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설·추석 연휴 제외)  
위치 : 송도컨벤시아 신관 1층  
제공 서비스 : 전시, 컨벤션 주최자를 위한 행사 지원, 대관, 현장 기술 지원, 연회, 주차, 통신 통합 상담 및 서비스 제공, 행사 물품 보관 및 소규모 회의 공간 제공  
문의 : ONE-STOP 고객지원센터 ㉠ 032-210-1111

08 직업 역량을 더욱 탄탄하게

(재)인천테크노파크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가 인천 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와 연계해 용접 기능사 자격증 대비반(필기, 실기) 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 일정  
\* 2기 : 8월 22일~11월 28일(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 3기 : 8월 23일~11월 29일(매주 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교육 신청 : ㉠ 032-260-0804, 032-712-2732  
㉠ ym118@itp.or.kr, job123@itp.or.kr  
기타 사항  
\*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교육 수수료 발급  
\* 작업화, 필기·실기 시험 교재 및 점심 식사 제공  
\* 수료 시,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용접 인기 재직자과정 우선 선발 기회 부여  
\* 수료 후 헬멧 및 개인 공구함 제공  
\*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무료 주차 가능  
문의 : (재)인천테크노파크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 032-260-0875~6

09 당신의 끼와 실력을 보여주세요

우리 시와 (사)한국음악협회가 팝송, 트로트, 힙합 등 다양한 장르로 참여할 수 있는 ‘2020 누구나 인천 중창제’를 주최합니다.

공연 일시 : 9월 26일  
오후 2시  
장소 : 부평아트센터  
해누리대극장  
참가 자격  
\* 인천, 경기,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타 지역 구성원 30%)  
\* 4명 이상 12명 이하  
\* 순수 아마추어 경연으로 전공자 또는 현역 가수 참가 불가  
연주 곡목 : 중창단별 2곡  
(페이스북@nugunasong 참고)  
공연팀 : 10~12개 팀 내외  
접수 기간 : 8월 12일까지  
신청 방법 : ㉠ www.facebook.com/nugunasong  
문의 : 누구나 인천 중창제 ㉠ 070-7552-9923





10 우수한 과학 공로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제24회 젊은 과학자상’을 선정합니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포상 목적 : 우수한 젊은 과학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과학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위상 및 과학 기술인으로서  
의 자긍심 제고
- 포상 분야 : 수학, 물리학·지구과학, 화학, 생명과학
- 대상 업적 : 국내에서 이룩된 최근 3년간의 대표적 연구  
개발 업적 1건을 중심으로 평가
- 포상 인원 : 각 분야별 1인
- 선정 발표 : 11월 중 예정
- 시상식 : 12월 중 예정
- 추천서 접수 마감 :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 기타 사항 : ④ www.nrf.re.kr 참조
- 문의 : 한국연구재단 ① 042-869-6673



11 취업 교육을 무료 지원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가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  
하는 국비 무료 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 기간 : 8월 3일까지
- 교육 기간 : 8월 10일~10월 7일
- 교육 과정 및 모집 인원
- \* 호텔객실관리사 : 모집 인원 20명, 호텔 객실 정비 이론  
및 실무
- \* 스마트 온라인쇼핑몰 창업 및 운영 :  
모집 인원 20명, 쇼핑몰 기획·구축 운영·마케팅 등  
교육 대상
-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여성 구직자
- \* 영세 자영업자 중 최근 1년간 매출 과세표준  
(수입 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
- 참가자 특전 : 교육비 전액 국비 지원, 훈련 수당  
(최대 6만6,000원), 교통비(최대 5만원) 지급
- 접수 방법 : ④ www.kopo.ac.kr/incheon 및 방문
- 문의 :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① 032-510-2356, 2354

12 어려울수록 상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위해 임차인과 상생 협약  
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 상생협력상가란 :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 건물주에게 시에서 리모델  
링비를 지원하는 상가 건물
- 신청 기간 : 8월 21일까지
- 신청 자격 : 인천 소재 상가로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 내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 지원 금액 : 최대 2,00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우편
-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④ www.insupport.or.kr
- 문의 :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① 032-715-4046

13 인천의 푸른 희망을 이야기해요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2020)을 기념하고, 인천  
해양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해양산업 발전 아이  
디어 및 논문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 공모전 주제 : 해운·항만·도시, 남북 물류, 스마트 해양,  
수중·해상 통신, 해양 환경, 해양 관광
- 응모 기간 : 9월 30일까지
- 응모 자격
- \* 논문 부문 : 대학(원)생
- \* 아이디어 부문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 방법 : ④ iiof2020@ioconvex.com
- 문의 : 인천국제해양포럼 사무국 ① 02-2152-5085

14 인천 도서관 100년의 역사가 한눈에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 ‘100년의 기록,  
역사가 되다’ 전시가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  
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9월 27일까지
- 장소 : 미추홀도서관 1층 어울림터 및 로비
- 내용 : 귀중 도서, 대일항쟁기 신문, 향토 자료 등
- 관람료 : 무료
- 문의 : 미추홀도서관 ① 032-462-3900

15 우리 모두 분리수거 전문가 ‘버리스타’

자원순환을 위해 쓰레기 하나도 잘 버릴 수 있다면, 당신  
은 지구의 스타, ‘버리스타’입니다.



16 한여름 밤의 낭만에 푹 빠져보세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맞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는  
연수 프린지 페스티벌 돗자리 콘서트 ‘8월의 크리스마스’  
를 개최합니다.

- 일시 : 8월 28일 오후 7시 20분~8시 40분
- 장소 : 송도 해돋이 공원(우천 시 청학문화센터 청학아트홀)
- 내용 : 신청곡 및 사연을 클래식 앙상블 ‘클바넷’이  
소개하고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가 공연
- 사전 신청 : 8월 10일~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 ④ www.yeonsu.or.kr 및 전화
- 관람료 : 무료
- 문의 : 연수문화원 ① 032-821-6229

17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으세요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천시 직장인들의 ‘워라밸  
(Work & Life Balance)’을 지원하고자 ‘2020 직장인  
학습 살롱’을 운영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만의 Vlog 제작하기]

- 일시 : 9월 5일, 12일 오후 1시~4시
- 장소 : 8라운지
- 인원 : 5명
- 비용 : 1만원
- 문의 : ① 010-9949-9503

[나만의 3D 캐릭터 만들기]

- 일시 : 9월 11일, 25일 오후 1시~4시
- 장소 : 인하대학교 C-School
- 인원 : 5명
- 비용 : 무료
- 문의 : ① 010-7557-0449

[직장인 1:1 보컬 교실 ‘나의 최애곡 마스터하기’]

- 일시 : 10월 10일, 17일 오후 1시~4시
- 장소 : G7실용음악학원
- 인원 : 5명
- 비용 : 1만원
- 문의 : ① 010-5527-7359

18 연수문화원과 함께하는 문화 클래스

[2020 곶다락 토요문화학교]

- 일시 : 9월 5일~11월 28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낮 12시 30분
- 대상 : 10~13세 아동 15명 및 가족 20명
- 장소 : 연수문화원
- 내용 : 다양한 창의적 예술 활동 및 악기들의 특징과  
표현 기법 익히기, 작곡과 발표 등
- 모집 기간 : 8월 18일~정원 모집 시까지
- 접수 방법 : ④ www.yeonsu.or.kr
- 문의 : 연수문화원 ① 032-821-6229

[전통문화 예절학교]

- 일시 : 9~10월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대상 : 연수구 관내 초등학생
- 장소 : 원인재
- 신청 기간 : 8월 11일까지 선착순 접수
- 참가비 : 전화 및 방문 접수(청학문화센터 2층)
- 문의 : 연수문화원 ① 032-821-6229



## 인천 서쪽에 있는데 왜 동인천이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 동네 이름 풀이한 <미추홀은 물골이다>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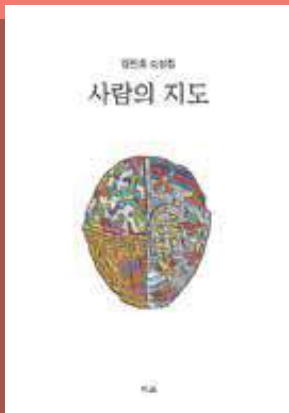
배도 다리도 없는데 왜 배다리라고 하는 걸까. 인천의 서쪽에 위치하는 지역을 동인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 인천의 다양한 지명이 어디서 어떻게 유래한 건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시민들이 오랫동안 불러온 동네와 지역 이름에 대한 유래를 담은 책이 발간됐다. <미추홀은 물골이다>는 인천의 동네를 구석구석 살펴본 책이다. 이 책은 인천(仁川)과 미추홀(彌鄒忽·매소홀貫召忽)의 뜻을 비롯해 중·동·미추홀·남동·연수구 등 5개 구, 115개 동네와 지역 이름의 유래를 설명한다. 책 편찬을 위해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훈몽자회>, <호구총수>, <인천부사>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조사했으며, 고대어에서 중세어를 거쳐 현대어에 이르는 우리말의 흐름과 어원을 살피며 역사적 사실과 국어학적 관점에서 땅 이름의 유래를 밝혔다. 월미도(月尾島)가 ‘달

(月)의 꼬리(尾)처럼 생긴 섬(島)이어서 생겼다’거나 소래(蘇萊)가 ‘삼국시대 말기 중국 장수 소정방(蘇)이 왔던(來) 곳이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는 식의 잘못된 통설을 바로잡으며 구체적 자료를 통해 실제 뜻을 알려준다. 책을 제작한 사단법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회장 황규철)는 내 고장 인천에 대한 사랑과 뿌리 의식을 키우는 범시민적 활동을 벌여나가자는 뜻에서 지난 2003년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인천사랑 아카데미’, 좋아요 인천! 인천시민 영상공모전, 인천 역사 강의와 현장 체험교실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책은 무료로 배포하며 홈페이지(incheonsamo.or.kr)를 통해 e-book으로도 볼 수 있다.

문의 032-439-0493~5

## 별별 14인 사람들의 내밀한 심리 묘사

소설가 김진초 아홉 번째 소설집 <사람의 지도> 펴내



새 소설집 <사람의 지도>는 77억 인구 중 제각기 다른 걸음걸이로 살아가는 14인의 모습을 담았다. 서해안의 작은 섬인 ‘누렴’에 죽어서야 돌아온 여자의 총체적 요리지도를 그린 ‘누렴 소나타’, 동성애자 남편을 참아내는 여자의 암흑기 탕진지도를 그린 ‘너의 중력’ 등 14개 단편 모두가 소재도 이야기도 재미있고 독특하다. 김진초는 “사연도 가지가지인 열네 사람이 비틀비틀 걸어가는 족적을 따라가 봤다”며 “별별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걸어간 타인의 지도를 따라가며 자신을 계량하고 안도, 채근하다 보면 우리의 발을 묶은 코로나19 재앙도 끝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진초는 1997년 <한국소설> 신인상으로 데뷔했다. 인천문학상(2006), 한국소설작가상(2016), 한국문협작가상(2016)을 수상했으며 소설집 <김치 읽는 시간>, 장편소설 <여자여름> 등 이번까지 모두 9권의 소설집을 펴냈다.

## 인천 이야기로 소통해 온 ‘1500호’



인터넷신문 <i-View> 1500호 발행 기념, 도약의 날갯짓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가 시민 소통 매체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며 뉴스를 전해온 지 올해로 15주년을 맞았다. 인터넷신문 <i-View>는 2005년 5월 9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창간한 인터넷신문이다. 창간 후 매주 화·목요일 인천시 주요 정책, 문화, 역사,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레터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서비스해 왔다. 지난 7월 30일자 발행된 신문은 1500호라는 의미 있는 타이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인터넷신문 <i-View>의 15주년은 시민들과 함께 인천을 발로 뛰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뉴스를 서비스해 온 ‘시민 저널리즘’ 발전의 역사이기도 하다. <i-View>는 시민기자, 객원기자단을 운영하며 이들이 인천

을 구석구석 발로 뛰면서 찾아낸 인천의 이야기를 신문의 주요 콘텐츠로 게재했다. 시민기자들이 발굴한 인천 콘텐츠는 우리 동네 이웃들의 이야기거나 궁금했던 지역의 숨겨진 역사, 문화였다.

<i-View>가 발굴한 인천 이야기는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지역신문 등에 재인용되어 인천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낙시용품 사장님에서 만화가 된 한창기 씨’, ‘인천 향토 음식 별별이름, 곤쟁이젓’, ‘재연 씨 그물에 사랑 걸렸네’, ‘말 타며 세상을 누비는 영종 안영길 씨’ 등의 기사는 전 국민을 울고, 웃게 한 콘텐츠들이다.

<i-View>의 다양하고 알찬 콘텐츠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굿콘텐츠서비스’ 인증 획득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i-View>는 1500호 발행을 기점으로 더 높은 도약과 시민친화적인 콘텐츠를 준비 중이다. 시민들의 니즈에 맞고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동영상 구현과 SNS 연계 강화를 통해 시민들과 더 소통하는 매체로 비상할 예정이다. 인천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가득 담고 있는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구독 신청은 신문 홈페이지(enews.incheon.go.kr)에서 하면 된다.

문의 032-440-8302





인천 지명

다시 찾은 그 이름,  
물치도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작약도’를 ‘물치도’로 바꾸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0여 년 넘게 불려온 일본식 이름 작약도는 사라지고, 원래 우리말 이름인 물치도가 제자리를 찾게 됐다. 만석동에 속해 있는 물치도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 영종도 옆에 바로 보이는 자그마한 섬이다. ‘물치’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된 바가 없으나, ‘밀물 때 들어오는 바닷물이 섬을 치받는다’는 뜻에서 ‘물치’라 불렀다는 해석이 있다. 물치도는 영종도와 인천 내륙 사이에 낀 섬으로,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손돌목(염하驛河)과 인천 앞바다가 이어지는 해로海路에 있다. 그래서 조수간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섬으로 들이치는 물살이 꽤 강해 수영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처럼 거센 바닷물이 치받는 섬이어서 ‘물치도’라 불렀다는 얘기가.



‘작약도’라는 이름은 한동안 별다른 근거는 없이,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스즈끼 하사오라는 일본 사람이 이 섬을 사들인 다음에 지어 붙인 것이라 알려졌다. 멀리서 이 섬을 보면 그 모양이 작약 꽃봉오리와 같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다. 또는 이 섬에 실제로 작약꽃이 많아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말도 있다. 작약꽃은 우리말로 ‘함박꽃’이라 부르며, 꽃이 크고 탐스러워 붙은 이름이다. 어쨌든 작약도의 원래 이름은 물치도이기에 20여 년 전부터 물치도라는 이름을 되찾아주자는 시민운동이 계속된 끝에 2020년에 와서야 어렵게 결실을 맺게 됐다. 이처럼 땅 이름은 한번 굳어지고 나면 고치거나 바꾸기가 쉽지 않아 처음 지을 때 신중해야 한다.



1997.08.30  
강화대교 개통

인천 소사

섬에게 다리는 특별하다.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1997년 8월 강화와 인천 도심을 연결하는 강화대교가 개통했다. 1993년 8월 착공 후 꼭 4년 만이었다. 1970년 개통된 강화교의 노후화에 따라 더 크고 튼튼한 다리가 새로 난 것이다. 강화대교는 강화읍 갑곶리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를 연결하는 길이 780m, 너비 19.5m의 연륙교다. 강화의 다리는 유독 8월과 인연이 깊다. 강화대교 개통 5년 뒤인 2002년 8월에는 초지대교가 완공됐다. 두 다리는 지금도 여전히 강화와 세상을 연결하는 그야말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때, 8월의 인천은...

- |              |                  |
|--------------|------------------|
| 1906. 08. 07 | 월미도 다리 준공        |
| 1946. 08. 02 | 인천세관 신설          |
| 1951. 08. 25 | 인천~서울 간 유선 전화 개통 |
| 1971. 08. 31 | 부평정수장 준공         |
| 1974. 08. 15 | 인천~서울 간 전철電鐵 개통  |
| 1991. 08. 01 | 인천지방경찰청 개청       |
| 2002. 08. 28 | 초지대교 개통          |
| 2008. 08. 01 | 송도컨벤시아 준공        |

여름 졸업식

사연 박소정(미추홀구 한나루로)

가을도 겨울도 아닌 여름 졸업식이라니. 지난해 12월, 마지막 학기를 끝으로 학교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침표가 될 졸업을 코앞에 둔 2월 즈음,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졸업식이 취소됐습니다. 꿈의 높이만큼 학사모를 던져보리라던 기대도, 가족의 축하와 응원도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모교에서 자그마한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열리지 못한 졸업식을 대신해 무료로 졸업 가운을 대여하고, 사진 촬영과 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였습니다. 열흘간 무려 300여 명의 동기들이 함께하며 의미 있는 추억을 새겼습니다. 졸업 가운 착용 전 발열 검사를 하는 등 안전 수칙도 꼼꼼히 지켰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학사모를 하늘 높이 던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세상 모든 청년 여러분, 꿈을 잃지 말고, 우리, 다시, 날아봅시다!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仁生 사진관’은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인천을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보내주신 사진을 실어드리거나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 8·15광복 75주년 인천, 태극기 휘날리며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장소’를 찾아낸 건 2013년이다. 대개의 특종이 그렇듯,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서울로 향했다. 제보자는 서울세관 공무원이었다. 그는 누렇게 빛바랜 고지도를 보여주며 ‘D39’란 필지 번호를 가리켰다. 번호 옆에 ‘稅務司公館’세무사공관이란 한자가 눈에 들어왔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장소는 ‘인천해관장 관사터’라고만 알려졌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정확히 어딘지 기록을 못 찾아 화도진이다, 올림포스호텔이다 등 수십 년 동안 의견이 분분하던 터였다. 그런데 자유공원 입구인 ‘중구 북성동3가 8-3’(현 리움웨딩홀)이 조약 체결 장소란 사실이 고지도의 발견으로 밝혀진 것이다. 역사의 오류를 바로잡으며 진실에 방점을 찍는 순간이었다. 특종 보도는 방송, 신문 등 여러 타 매체로 확산되었고 사학계의 중요 의제로도 설정됐다. 수년 뒤 전문가들의 논의와 면밀한 연구를 거친 끝에 ‘D39’ 자리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지로 비정되었다. 후속 취재 보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인천 태극기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던 1882년(고종 19) 5월 22일 전까지 우리나라엔 정식 국기國旗가 없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앞둔 1882년 5월 14일, 미국 전권특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장소인 현 ‘리움웨딩홀’



인천시가 지난해 광복절을 기념해 디자인한 태극기

사 슈펠트Schufeldt 제독은 조선 대표인 신헌과 김홍집에게 “조선의 국기를 만들어 조인식에 사용해 달라”고 요청한다. 김홍집은 역관 이응준에게 국기 제작을 명했고, 이응준은 슈펠트가 타고 온 미국 함정 스와타라Swatara호에 머물며 조약 체결 8일 전 제작을 시작해 22일 완성한다. 우리나라 최초 태극기의 창안이었다. 이 태극기는 5월 22일 인천 앞바다가 잘 내려다보이는 제물포 언덕에서 진행한 조인식에서 성조기와 함께 나란히 게양됐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1882년 9월 25일, 박영효는 일본 시찰을 떠나던 메이지마루明治丸 배 안에서 이응준의 태극기를 모본으로 ‘태극·4괘 도안’의 기를 제작해 일본 방문 때 사용한다. 이듬해인 1883년 3월 6일 고종임금은 박영효의 태극기를 공식 국기로 제정·공포한다. 그러나 국기 제작 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이후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2년 ‘국기통일양식’을 제정·공포하면서 지금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조약인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인의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불평등 조약이었다. 조선의 쇄국정책 종결과 함께 개화파·위정척사파의 대립 구도가 깨지며 근대국가로의 첫발을 내디딘 측면이 있긴 하다. 이 조약은 이후 조영(1883), 조독(1883), 조이(1884) 수호통상조약 등 서구 열강과 잇따라 맺은 조약의 준거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개항기 서구 열강의 공략을 감당하기 위해 제작했던 태극기는 3·1운동의 물결로 흘렀고, 일제강점기 의사義士·열사烈士들이 가슴에 품고 다니며 거사를 치를 때 꺼내어 본 독립운동의 표상이었다. 21세기의 태극기는 K-방역, K-스포츠, K-팝 등 대한민국의 높은 국격을 연상시키는 상징물이자 국민적 자부심이 되었다. 8·15광복 75주년, 인천의 역사와 혼이 새겨진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인다.



## 1970년대 새마을운동 vs 2020년대 도시재생사업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1970년대, 도시·농촌 할 것 없이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논밭이었다가 부평공단 조성과 함께 공단 배후지로 개발된  
계양구 효성동 역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전개됐습니다.

50년 전 새마을운동을 펼치던 효성동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새마을회관 자리엔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람이나 동네나 세월엔 장사가 없는 법인가 봅니다.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